

337. / 55

1/2

GOVP1200604763
01121169

희망의 빛



등대길잡이

www.momaf.go.kr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발간사



파란 바다와 푸른 숲이 아름다운 희망의 등대!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문학·예술·관광을 접목시켜 모든 국민들이 바다를 사랑
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고자 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위로 뱃길을 열어주는 등대의 한줄기 불빛은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등대를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새로운 해양문화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0여년을 한결같이 바다의 안전을 지켜온 희망의 빛! 등대는 이제 단순한 안내
기능을 넘어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증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가볼만한
등대를 소개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교통편을 함께 수록한 '희망의 빛 등대 길잡이'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하얀 등대를 찾아 아름다운 추억과 희망을
듬뿍 담아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 1. 31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오거돈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해발의 빛

등대 길잡이

CONTENTS

- 발간사 · 2
- 위치도 · 6

- <서해안>
- 팔미도 등대 · 8
- 선미도 등대 · 10
- 소청도 등대 · 12
- 부도 등대 · 14
- 옹도 등대 · 16
- 어청도 등대 · 18
- 말도 등대 · 20

- <남해안>
- 홍도 등대 · 22
- 소흑산도 등대 · 24
- 목포구 등대 · 26
- 가사도 등대 · 28
- 죽도 등대 · 30
- 당사도 등대 · 32
- 하조도 등대 · 34
- 마라도 등대 · 36
- 산지등대 · 38
- 추자도 등대 · 40
- 우도 등대 · 42
- 거문도 등대 · 44
- 오동도 등대 · 46
- 소리도 등대 · 48
- 백야도 등대 · 50
- 소매물도 등대 · 52
- 서이말 등대 · 56
- 영도 등대 · 58
- 가덕도 등대 · 60
- 오륙도 등대 · 62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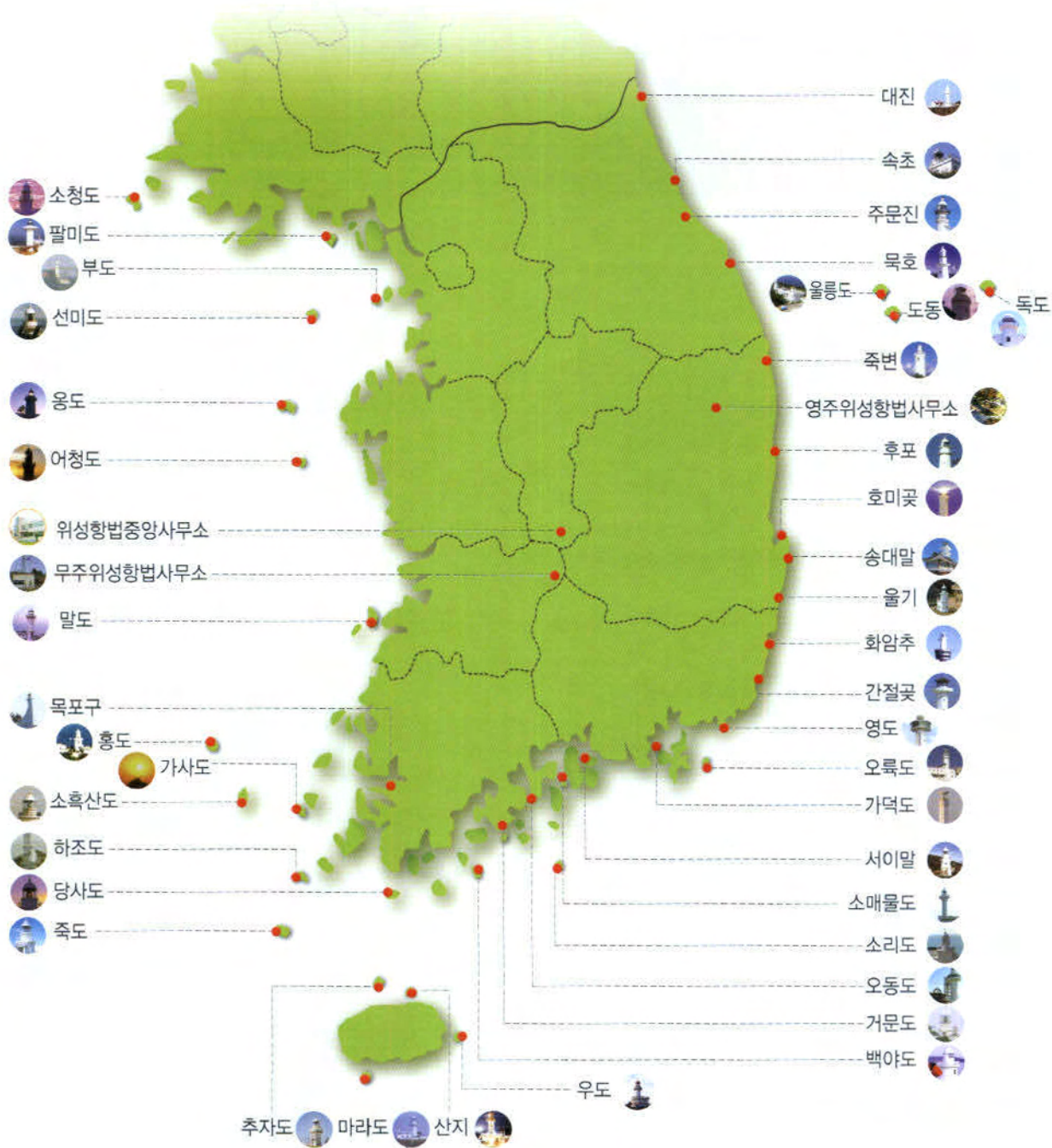


〈동해안〉

화암추 등대	· 64
간절곶 등대	· 66
울기등대	· 68
죽변 등대	· 70
송대말 등대	· 72
호미곶 등대	· 74
독도 등대	· 76
도동 등대	· 78
울릉도 등대	· 80
후포 등대	· 82
대진 등대	· 84
속초 등대	· 86
주문진 등대	· 88
묵호 등대	· 90

국립등대박물관	· 92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98
무주위성항법사무소	· 100
영주위성항법사무소	· 102
등대의 기원	· 104
대한민국 등대의 역사	· 105
항로표지의 종류	· 108
국제해상부표 방식	· 109
바다현장	· 110





희망의 빛

등대길잡이



01

팔미도 등대

등대역사 100년 증인

인 천항에서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작은 섬, 팔미도에 우뚝 솟아 있는 하얀등대는 인천항 진입 항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1903년 6월1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대 불빛을 밝힌 팔미도 등대는 지난 100년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금은 인천시 지방문화재(제40호)로 지정되어 그 자리를 지키며 보존되고 있다.



팔미도 (구) 등대

현재의 팔미도 등대는 높이 26m, 전망대, 10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천년의 빛),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기준국 등의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2003년 12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등명기 불빛은 국내기술로 개발된 프리즘렌즈 대형 회전식등명으로 50km까지 비추며, 10초에 1회씩 번쩍인다. 팔미도에는 칩, 해송, 담쟁이덩굴, 패랭이꽃 등이 서식하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03. 6. 1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 374
- 구 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 (26m)
- 등 질 : 백삼광 10초 1섬광(F W 10s)
- 특 징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대리석과 콘크리트를 혼용하여 설치된 (구)팔미도등대와 함께 최신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인천항 안전항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팔미도항로표지관리소 ☎ 032-831-4925
- 홈페이지 : <http://www.portincheon.g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실미해수욕장(무의도)

실미해수욕장은 초승달 모양의 해변 모래사장이 있다. 또한 바닷길이 열렸을 때 갈 수 있는 실미도에는 영화[실미도]세트 장터를 볼 수 있다.

2 "천국의 계단" 촬영지(무의도)

"한류"의 주인공인 권상우, 최지우 주연의 [천국의 계단] 드라마 세트장을 볼 수 있다.

3 하나개해수욕장(무의도)

섬에서 가장 큰 갯벌이라는 뜻의 하나개해수욕장은 무의도 선착장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도착한다.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모래가 깔린 갯벌 앞으로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다.

TIP

사주(沙洲)에 의하여 연결된 두개의 섬이 마치 여덟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아 팔미도(八尾島)라 불려졌다고 한다. 인천 사람들에게는 "팔미귀선(八尾歸船)", 즉 낙조에 팔미도를 돌아드는 범선의 자취가 아름다워 인천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해상 경승지였다. 일본과 우리정부가 체결한 "통상장정(通商章程)"에 따라 조선왕조는 1903년 6월 높이 7.9m, 지름 2m의 팔미도등대를 건설하였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 경인고속도로 → 인천연안부두
- 버 스 : 동인천역 → 연안부두행 (12, 24번)
- 선 박 : 연안부두(여객터미널) → 무의도 (1일 2-3회 운항 20분 소요)
* 용선 : 무의도 → 팔미도 (20분 소요)

인 천항으로부터 3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미도등대는 인천항과 중국간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북한과의 해상교역을 위해 남북한을 왕래하는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다.

선미도 등대는 2003년 12월에 새롭게 태어났다. 오랜 풍상에 남아 훼손된 기존 등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금의 등대가 건립되었으며, 높이가 19.4m로 당초보다 더 높게 지어져 37km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 등대 불빛을 전달하는 등명기는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프리즘렌즈 3등대형 등명기로 12초에 한번씩 반짝인다.

무인도인 선미도에는 가마우지, 까치, 노랑할미새, 흰뺨검둥오리가 살고 특히 겨울철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된 참수리가 겨울나기를 한다. 해안가에는 손으로 휘쓸면 한주먹씩 잡힐 정도로 수많은 고동이 붙어 있고 게들이 기어나오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 최초점등일 : 1934. 10. 1
- 위치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복리 산 186-2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 (19.4m)
- 등질 : 백색광 12초 1섬광 (FW 12s)
- 특징 :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해발 157m)에 설치된 등대로서 등대 직원 3명이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인도 섬이다.
- 연락처 : 선미도항로표지관리소 ☎ 032-831-4927
- 홈페이지 : <http://www.portincheon.g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능동 자갈마당(덕적도)

크고 작은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주변의 기암괴석과 갈대밭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붉게 물든 낙조는 서해안의 해금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비조봉(덕적도)

해발 294m의 능선과 연결된 감투바위, 망제등 봉우리들이 각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침엽수림이 많아 봄이면 산림욕하기에 적당하고, 여름엔 매미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3 발지름해수욕장(덕적도)

고운 백사장과 수백년 묵은 노송숲이 우거져 있어 아늑하고 조용한 가족단위 휴식처로 최적이다.

TIP

선미도 부근은 풍량이 심해 많은 어선들이 침몰했던 곳으로 "옛날 착하고 아름다워 임금의 총애를 받던 공녀가 왕비의 질투로 밀려나 외딴섬에 유배된 채 덧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한을 품은 영혼이 구천을 맴돌며 섬에다 저주를 내려 악독하고 험난하게 만들어 인간을 얼씬도 못하게 하자 공녀의 영혼만이라도 물으로 보내어 그녀가 그리던 임금님 곁으로 가게 하기 위해 젊은 총각을 구해 제(祭)를 지내고 선을 베풀어라는 뜻에서 선미도(善尾島)라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이 있다. 또 한을 품은 영혼이 저주를 내려 악독하고 험난하게 만들었다하여 악험도(孽險島)라고도 불린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 경인고속도로 → 인천연안부두
- 버 스 : 동인천역 → 연안부두행 (12, 24번)
- 선 박 : 연안부두(여객터미널) → 덕적도(1일 3~4회 쾌속선 50분 소요)
* 용선 : 덕적도 → 선미도 (40분 소요)



03

소청도 등대

푸른 바닷물이 이국적인 낭만의 섬!

소청도는 인천항에서 서북방 210km 거리에 위치한 옹진군 대청면에 속해 있는 섬으로 멀리서 바라볼 때 울창한 산림이 검푸르고 이 검푸른 색깔이 마치 눈썹 색깔과 같다하여 이를 푸른섬(검푸른섬) 청도(靑島)라 불렀다 한다.

소청도의 서쪽 끝 83m 고지에 우뚝 서 있는 소청도등대는 서북해 일대와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지방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의 바다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우리 민족의 암흑기였던 일제 강점기를 거쳐 8.15광복후 오늘날까지 술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해상 휴전선에 등불을 밝히며 남북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소청도는 바다 건너 북한 옹진반도가 훤히 보이는 곳으로서 주민 대부분이 이북에서 피난 나와 거주하는 섬이다. 소청도 주변해안에는 자연산 전복, 해삼, 가리비, 성게, 홍합 등 수산물이 풍부한 곳이며 부근해역에서는 우럭, 광어, 놀래미, 갯장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섬에 민박시설 및 낚시 배가 있어 인천 또는 수도권의 유명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소청도등대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여 소청도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유일한 해양문화공간이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낚시꾼에게는 소청도 제1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 최초점등일 : 1908. 1. 1
- 위치 :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307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0m)
- 등질 : 백색광 40초 4심광 (F(4) W 40s)
- 특징 : 푸른바다가 이국적 낭만을 느낄수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등대
- 연락처 : 소청도항로표지관리소 ☎ 032-836-3104
- 홈페이지 : <http://www.portincheon.g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낚시배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 특히 갯낚시로 우럭, 놀래미, 가자미 등의 어종이 많이 난다.

2 분바위

마치 달빛이 하얗게 띠를 두른 듯하여 해월띠라고도 불리는 분바위는 그믐밤 바다에서 동네 앞으로 들어 오는 배들의 방향잡이 역할을 한다. 해안선을 따라 장엄하게 펼쳐진 분바위 대리석은 신이 빛은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분바위에서 원나라 순제가 놀다 가던 곳으로 전해지고 길이 50m 거리의 굴이 안으로 뚫려 있다.

3 발모래사막(대청도)

가로 2Km, 세로 1Km에 달하는 모래사막이 넓게 발달하여 있으며 그 표면에는 바람에 의한 연흔으로 장관을 이루며 각 계절마다 다른 진풍경을 연출한다.

Tip

문헌에 의하면 후삼국시대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교통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태조 15년(932) 10월에 후백제의 견훤이 수군장군 상대 등을 시켜 대우도를 침공하자는 모함에 빠져 백령도(白翎島)에 귀양와 있던 유금필(庾黔弼)이 백령도와 포을도(包乙島)에서 장정을 뽑아 군대에 충원하고 배를 수선하여 이들을 방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원래 "푸른섬"이라는 것을 그 음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쓰게 된 것이 포을도(包乙島)이고 이를 그 뜻에 따라 한자로 쓰게 된 것이 청도(靑島)로 표기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청도(소·대청도)라는 지명은 배를 타고 중국을 오가는 뱃사람들에 의하여 항해중의 표적인 "푸른섬(포을도)"으로 불려 지다가 청도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 경인고속도로 → 인천연안부두
- 버 스 : 동인천역 → 연안부두행 (12, 24번)
- 선 박 : 연안부두(여객터미널) → 소청도 (1일 2회 쾌속선 3시간 30분 소요)

04

부도 등대

인천항의 관문 부도 등대, IT 등대로 변모

부도는 인천항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1904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곳 부도에 등대가 설치되었다. 그 위치의 중요성에 걸맞게 항로표지의 주요기능인 광파, 전파, 음파표지를 모두 갖춘 등대이다. 이 등대의 등탑은 높이 15.2m, 지름 3m 규모로 불빛은 15초에 한번 반짝인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프리즘 렌즈를 이용한 회전식 대형등명기를 설치하여 약50km의 먼 곳에 있는 선박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광력을 증강하였고, 또한 지역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하여 선박운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5년 5월에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조류신호시스템 설치로 이용자에게 조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인천항 입출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하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04. 4. 1
- 위치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 263번지
- 구조 : 백원형 석조 (15.2m)
- 등질 : 백색광 15초 1섬광(FW 15s)
- 특징 : 인천항 관문에 위치하고 국내 최초로 조류신호시스템 설치운영
- 연락처 : 부도항로표지관리소 ☎ 032-833-3926
- 홈페이지 : <http://www.portincheon.g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남대문바위(승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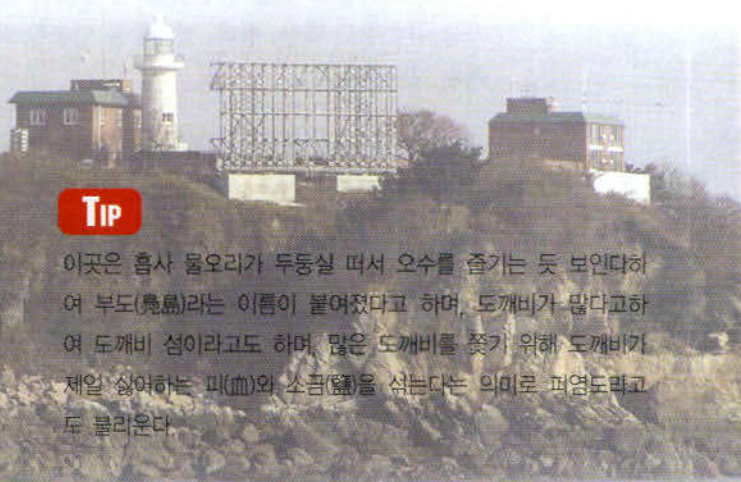
바위모양이 남대문 같다하여 부르게 되었다는데 바위 벼랑 끝에 소나무는 동물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

2 촛대바위(승봉도)

승봉도 남동쪽 부두 끝쪽 소리개산밑에 있는 바위로서 마치 바위 형태가 촛대와 같이 생겼다하여 촛대바위로 불리고 있다.

3 이일레해수욕장(승봉도)

해수욕장 주변에 울창한 숲속이 이루어져 시원함을 더해 주고 있으며 서해에서 유일하게 개발된 150질 규모의 콘도 미니엄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Tip

이곳은 흡사 물오리가 두둥실 떠서 오수를 즐기는 듯 보인다가 하여 부도(鳧島)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도깨비가 많다고 하여 도깨비 섬이라고도 하며, 많은 도깨비를 쫓기 위해 도깨비가 제일 싫어하는 피(血)와 소금(鹽)을 식는다는 의미로 피염도라고도 불리운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 경인고속도로 → 인천연안부두
- 버 스 : 동인천역 → 연안부두행 (12, 24번)
- 선 박 : 연안부두(여객터미널) → 승봉도 (1일 2~3회 1시간 20분 소요)
* 용선 : 승봉도 → 부도 (40분 소요)



용도는 그 면적이 0.17km²이며 높이가 80m 정도인 무인도로써 봄이면 동백꽃이 장관을 이루고, 2백년 짝은 죽어 보이며 보이는 동백나무 군락이 산동성 오솔길을 따라 밀집되어 있으며 섬 정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동백나무 숲은 밀림을 방불케 한다.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동북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산동성에는 천남성이, 짚레꽃, 산벚나무 등의 자생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다.

용도등대는 구한말인 1907년 1월에 세워졌다. 등탑은 높이가 14m이며 8각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으며, 등대의 불빛은 35~40km 거리에서도 육안 식별이 가능하며 주로 대산, 평택, 인천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들이 서해안 항로를 따라 이곳을 거쳐 지나간다.

현재 용도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어 해양관광자원으로의 잠재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관할관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친 해양수산시설 문화공간을 조성,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험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 최초점등일 : 1907. 1. 1
- 위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산29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14.7m)
- 등질 : 섬 백광 15초 1심광(FW 15s)
- 특징 : 충청남도 유일의 유인등대로서 선박운항이 제일 어려운 관정항 수도에 위치하며 황해의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용도항로표지관리소 ☎ 041-675-1317
- 홈페이지 : <http://daesan.momaf.go.kr>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



2



3

1 연포 해수욕장

태안에서 서쪽으로 약 9km지점에 위치하며 활처럼 흰 백사장이 장관을 이룬다. 또한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가장 높아 개장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유명하다.

2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으로서 수령 100년 내외의 안면 소나무 천연림이 430ha에 집단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휴양림으로 들이서는 순간 생활의 쉼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

3 간월도

1983년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연육교로 이어져 차량으로 서산시내에서 20여 분이면 닿을 수 있다. 어리굴젓과 간월암으로 이름난 간월도는 서산 갯마을의 상징적인 섬이다.

TIP

태안반도 안흥신항(신진도)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웅도는 그 모양이 마치 독(웅기)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섬 한가운데 정상에 등대가 있어 등대섬이라고 불린다.



🚗 찾아오시는 길(서울→태안)

- 버 스 : 서울남부터미널(06:40 ~ 19:00, 15~20분 간격, 2시간 20분 소요)
→ 태안 → 안흥항 직행버스(07:15 ~ 20:40, 1일 6회, 30분 소요)
- 승용차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 및 해미나들목 → 태안 → 안흥항
※용선 : 안흥 → 웅도(30분 소요)



군 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72km, 중국 산둥반도와는 약 300km 정도의 거리로서 개 짚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 영해기선 기점중 하나인 어청도가 있다.

어청도 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3월에 대륙진출의 야망을 가진 일본의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 건설되었고 군산항과 우리나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등대이다.

등탑은 백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이며 조형미를 살리기 위하여 등탑 상부를 전통 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재구성한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이기도 하다. 또한 상부 홍색의 등륜과 하얀 페인트를 칠한 등탑, 그리고 돌담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그 모습이 바다와 너무 잘 어우러져 다른 등대보다 그 자태가 더 아름답다. 해발고도 61m에 위치하여 약 37km 떨어진 바다에까지 그 등광(燈光)을 비추고 있다.

특히 해질녘 등대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은 직접 본 사람도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할 정도로 환상적이다.



- 최초점등일 : 1912. 3. 1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364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5,7m)
- 등질 : 삼백광 12초 1섬광(FW12s)
- 특징 : 서해중부 해상의 거울같이 맑은 바다위의 어청도 섬 끝단에 등대가 위치하며 서해안에서 제일 먼저 전파를 이용한 무선표지를 설치 운영했던 등대이다.
- 연락처 :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 063-466-4411
- 홈페이지 : <http://gunsan.momaf.go.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



2



3

1 치동묘(淄東廟)

어청도 마을 중앙에 전횡장군의 사당으로 팔각 기와 지붕에 9개의 사각 기둥이 떠받치고 있으며 처마에는 13개의 사각 기둥이 세워져 있다. 내부에는 전횡 대감 영정이 있다.

2 봉수대

어청도의 주봉인 서방산위에 있으며 원추형 석축으로 군산의 고방산 봉수대와 신호를 주고 받았다.

3 어청도항

어청도는 서쪽으로 트인 C자형을 이루며 북서계절풍에 의한 침식으로 섬의 북서쪽에는 높은 해식애가 발달하여 있다. 89%에 이르는 면적이 해발고도 100m안팎의 산지로 이루어져 경지는 적으나 산림이 울창하다. 또 충분한 수심의 넓은 내만(內灣)이 있는 등 어항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황해 중부어장의 기항지로서 일기불순 때는 대피항으로서의 역할도 크다.

Tip

어청도는 물 맑기가 거울과도 같이 어청도라 불리워졌다고 한다 어청도의 "청"은 맑을 청(淸)이 아닌 푸른 청(靑)자를 쓰고 있다. 그것은 BC 202년경 중국의 한고조(漢高祖)가 초항우(楚項羽)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후 패왕 항우가 자결하자 재상 전횡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망명길에 올라 뚝 단배를 이용하여 서해를 목적지 없이 떠다니던 중 중국을 떠난지 3개월만에 이 섬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날은 쾌청한 날씨였으나 바다 위에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산 하나가 우뚝 나타났다고 한다. 전횡은 이곳에 배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푸른 청(靑)자를 따서 어청도(於靑島)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 송용차 : 군산IC → 706지방도(군산) → 27번국도(성산) → 군산 여객선터미널
: 익산IC → 익산원광대 → 전군도로 → 중동사거리 → 군산 여객선터미널
- 선 박 : 군산 여객선터미널(1일 1회, 3시간 소요) → 연도 → 어청도



07

말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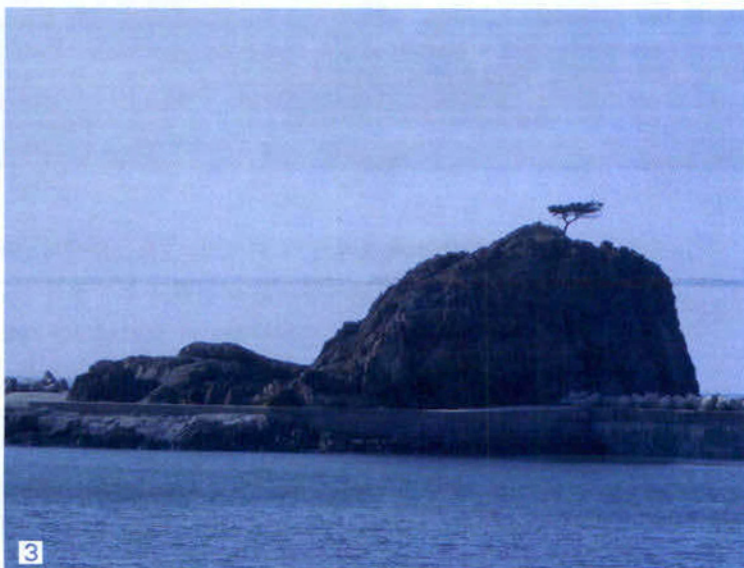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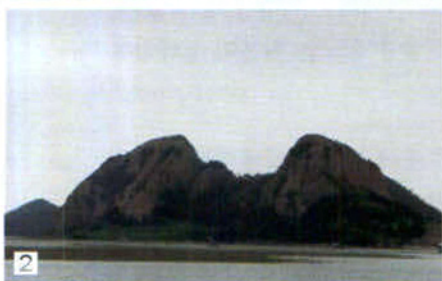
고군산군도 끝자락 末島 등대, 서해안을 따라 오가는 배들의 길잡이

군 산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km 해역, 그 곳에 수십개의 조그마한 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선유도(仙遊島), 신시도(新侍島), 무녀도(巫女島), 방축도(防築島), 관리도(串里島), 장자도(壯子島), 말도(末島) 등 63개의 섬들이 군락을 이루며 점점이 모여있는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다. 고군산군도의 섬들 중 신시도와 야미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육지화되었고,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 일부 섬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고군산군도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말도에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11월에 대륙진출의 야망을 가진 일본의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 세워졌다. 당초 등대는 백색의 8각형 콘크리트 구조에 내부는 주물로 만들어진 2단 나선형 사다리가 설치된 형태였으나,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해풍에 부식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1989년 10월 백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등대불빛을 발하는 등명기는 국내에서 개발한 프리즘 렌즈 회전식 대형등명기로 37km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어 서해안과 군산항을 오고가는 선박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말도등대가 위치한 고군산군도의 자랑거리인 고군산 8경(선유팔경)을 섬들 간을 연결한 다리를 이용하여 자전거 하이킹으로 둘러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 최초점등일 : 1909. 11. 1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7.5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FW10s)
- 특징 : 서해중부 연안의 고군산열도 최북서단에 위치하는 등대이며 서해안과 군산항을 오고가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말도항로표지관리소 ☎ 063-465-2089
- 홈페이지 : <http://gunsan.momaf.go.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 명사십리(明沙十里)

고군산 8경(선유팔경)으로 일컫는 8군데 명소가 있는데 이 중 선유도 해수욕장의 유리알처럼 고운 모래는 10리에 이어서 있으며 해질녘 서쪽바다가 온통 붉게 물드는 장관을 볼 수 있다.

2 망주폭포(望主瀑布)

선유팔경중의 하나인 망주봉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2개의 산봉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북쪽을 향해 서 있다. 젊은 남녀부부가 임금님을 기다리다 그만 굳어져 바위산이 되고 말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해발 152m의 이 봉우리는 여름철에 큰 비가 내리면 7~8개의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장관을 이룬다.

3 말도 천년송(千年松)

5월경이면 바다 갈매기가 모여들어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린 신비의 천년송과 말도등탑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Tip

말도등대가 자리잡고 있는 고군산군도의 옛 지명은 '군산도'다. 해발 150m의 높이가 낮은 구릉성 섬들이 바다에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이 무리지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시대 때 최무선이 왜구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진포해전의 기지이며 조선시대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수군진영의 명칭도 '군산진'이었다. 조선 세종 때 진영을 인근 군산지역으로 옮기면서 지명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이 섬들에 대해선 옛고(古)자를 앞에 넣어 고군산(古群山)이라는 새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 군산C → 706지방도(군산) → 27번국도(성산) → 군산 여객선터미널 : 익산C → 익산원광대 → 전군도로 → 중동사거리 → 군산 여객선터미널
- 선 박 : 군산 여객선터미널(1일 1회, 1시간50분 소요) → 장자도 → 관리도 → 방축도 → 말도



홍도등대는 목포에서 약 116km, 대흑산도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목포항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뱃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도등대의 건립과정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2월 대륙진출을 꿈꾸는 일본이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자국함대의 안전항해를 위해서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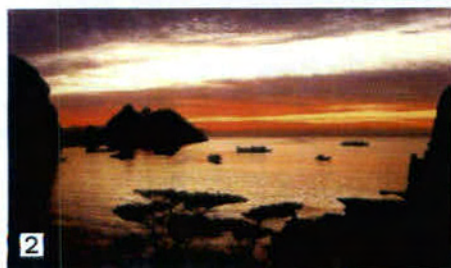
홍도등대의 불빛은 20초에 3번 반짝이며, 약 45km의 먼 곳에 있는 선박에까지 불빛을 전달한다. 등탑의 높이는 10m로 높지는 않으나 보통 원형으로 만들어진 다른 등대와 달리 사각형 콘크리트구조로 내부에는 상부로 올라가는 주물계 계단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홍도에는 향기가 10리 까지 풍긴다는 대염풍란 등 274종의 희귀식물과 230여종의 동물류가 서식하고 있어 1965년부터 섬 전역이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암괴석 틈새에 자생하고 있는 500여년 된 분재 소나무, 석화 굴, 탑섬, 독립문 바위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쪽빛 바다에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흑산도 홍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기도 하며, 해마다 많은(연 16만명)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해상경관과 환상적인 낙조를 보기위해 신비의 섬 홍도를 찾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31. 2. 1
-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5-2
- 구조 : 백4각형 콘크리트조(10m)
- 등질 : 섬 백광 20초 3삼광(F(3) W 20s)
- 특징 : 해질 무렵 섬 전체가 붉게 보이고 기암괴석과 노송이 절경을 이루는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홍도에 위치하여, 동남아 항로와 황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육지 초인표지 역할을 하는 등대이다.
- 연락처 : 홍도항로표지관리소 ☎061-246-3888
- 홈페이지 : <http://mokpo.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



2



3

1 남문바위

홍도8경 중 홍도의 관문에 위치한 제1경 남문바위가 홍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2 홍도석양

석양노을이 바다에 반사되어 붉게 물든 홍도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3 홍도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홍도는 본도와 20여개의 속도를 포함하고 있다.

TIP

홍도마을은 1480년경 金海金氏 金太善이 고기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다보니 사람이 살만하고 풍경이 좋아 정착하였다고 하며, 섬 전체가 홍갈색을 띤 규암질 바위로 이루어져 해질녘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 하여 紅島라 하였다.



찾아오시는 길

- 버 스 : 목포역 → 시내버스(1, 1-1, 1-2, 1-3, 3번)승차
→ 목포제1여객터미널하차(20분 소요)
- 선 박 : 목포제1여객터미널(1일2회 쾌속선 2시간30분 소요, 승용차선적불가)
→ 홍도1구(용선 30분 소요) → 홍도2구



소 흑산도등대는 중국 상하이의 닭울음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7년 12월 무인등대로 처음 불을 밝힌 후 주변해역의 통항선박 증가에 따라 등대 기능강화를 위하여 1935년 9월부터 등대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바뀌었다.

소흑산도등대는 동지나해 및 외해에서 우리나라 서남해안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육지 초인표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백색의 등탑은 7.6m이며, 야간에 15초마다 반짝거리는 등대불빛은 약 38km 밖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최첨단 항법시스템인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이 2002년 11월에 설치되어 반경 100마일 이내에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오차를 1m이내로 줄여주는 위치보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거도는 섬 전체가 후박나무 군락지로 전국 후박나무 약재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주변 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저가 대부분 암초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감성돔, 돌돔, 볼락의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07. 12. 1
-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2
- 구조 : 백원형 연와조(7.6m)
- 등질 : 섬백광 15초 1섬광(F W 15s)
- 특징 :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에 위치한 등대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육지초인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소흑산도항로표지관리소 ☎061-246-5553
- 홈페이지 : <http://mokpo.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



3



2

1 소흑산도 일출

힘차게 솟아오르는 소흑산도의 일출 풍경

2 후박나무 군락지

섬 전체가 후박나무 군락지로 전국 약재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3 갯바위낚시

섬 전체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갯바위 낚시터로 돌돔, 농어, 감성돔 등 고급어종이 잡힌다.

TIP

가거도는 인구 504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해도상에는 소흑산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예전에 목포와 가거도간 직항로가 없고 대흑산도를 거쳐야만 소흑산도까지 오갈 수 있었던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섬 이름이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가가도(嘉佳島, 可佳島)였으나 1896년부터 '가히 살만한 섬'이라는 뜻의 가거도(可居島)로 명명되었다.



찾아오시는 길

- 버 스 : 목포역 → 시내버스(1, 1-1, 1-2, 1-3,3 번승차 → 목포제1여객터미널하차(20분 소요)
- 선 박 : 목포제1여객터미널(2일1회 쾌속선 4시간30분 소요) → 소흑산도1구(용선 30분 소요) → 소흑산도3구



10

목포구 등대

목포항의 관문에 위치하여 불빛을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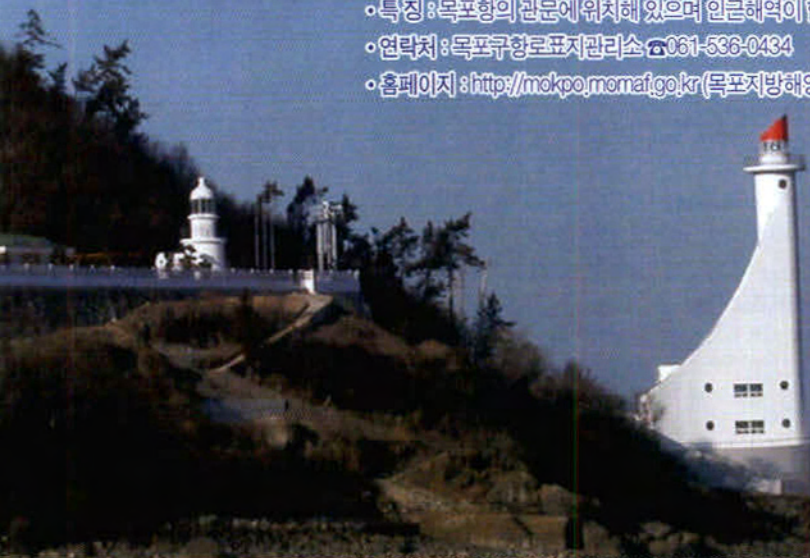
목포구등대는 1897년 10월 개항한 목포항의 관문에 설치되어 화원반도와 달리도의 협수로(폭600m)를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등대 불을 밝히고 있다.

목포구등대는 건립당시 무인등대(높이 7.2m, 백원형콘크리트조)로 설치되었으나 1964년 12월 등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등대원이 근무하는 유인등대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목포구등대는 등탑 36.5m(기초상) 높이로 힘차게 항진하는 선박을 형상화하여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들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으로 구축된 “항로표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운영센터가 목포구등대에 설치됨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단순한 등대 기능유지 뿐만 아니라 목포권 무인표지의 동작상태를 24시간 감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항로표지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목포구등대는 목포권 유인등대 중에서 유일하게 육지에 위치해 있으며, 등대를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목포에서 금호방조제를 지나 해남군 화원반도를 횡단해야 하며 약 50분가량 소요된다.

- 최초점등일: 1903. 1. 1
- 위치: 전남 해남군 화원면 대월리 696-1
- 구조: 백원형 철근콘크리트조(36m)
- 등질: 섬 백광 6초 1삼광(FW5s)
- 특징: 목포항의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해역이 협수로로 조류가 강해서 등대 역할이 중요하다.
- 연락처: 목포구항로표지관리소 ☎061-536-0434
- 홈페이지: <http://mokpo.moma.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모터사이렌



1 유달산

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목포 제일의 산으로 기암절벽이 첩첩으로 있어 “호남의 개골”이라 한다.

2 고힌도

고하도는 지형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섬이라하여 용머리로도 유명하다.

3 갯바위

삿갓을 쓴 스님을 닮아 “삿갓바위”라고도 부른다.

TIP

목포구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1월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까지 승리한 일본제국주의의 본격적인 대륙진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세관공사부 등대국에서 관세수입으로 설치되었다.



찾아오시는 길

• 차량이용 : 목포 → 화원면 월례리 → 목포구등대(25km/50분 소요)



11

가사도 등대

사자의 포효소리 가사도 무선소

천 태만상의 크고 작은 섬들과 기암괴석! 그들을 둘러싼 파란 하늘과 출렁이는 바다 물결, 파란 용단주위에 진주를 뿌려 놓은 듯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다도해에 둘러싸인 가사도는 지형적으로 말 모양으로 말의 이마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 형상이다.

부산·제주 ↔ 인천·목포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광력증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4년 10월 유인등대로 새롭게 태어나 서남해역 교통로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등탑은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7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위치하며 프리즘 렌즈 회전식 등명기의 불빛은 50km에 이르고 있다. 지역적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되어 통항선박의 안전항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향신호인 무신호기를 작동하여 음산한 해무와 연중 승부를 겨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첨단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인 DGPS감시국과 연안해상교통관제(VTS)서비스 제공을 위해 레이더를 설치·운영중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항로표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근의 하조도등대가 장죽수도를 관장하는 이정표라면 가사도등대는 목포의 내·외항의 교차로에서 지정확적으로 해상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15. 10. 1
- 위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산395-1
- 구조 : 백원형콘크리트조(12m)
- 등질 : 백섬광 15초 1섬(FW15s)
- 특징 : 서남해 연안항로와 동남아 항로가 분기되는 지점에 설치된 등대이며 국내개발 회전식대형등명기의 강력한 불빛으로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가사도항로표지관리소 ☎ 061-542-5600
- 홈페이지 : <http://mokpo.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1 광대도(사자섬)

주변의 주지도(손가락섬), 양덕도(발가락섬)와 불도의 천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람하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자의 콧잔등을 스쳐지나가며 해상크루즈여행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코스이다.

2 세방낙조

석양빛에 물든 기암괴석과 붉은 바다는 해상여행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곳으로 진도 취미항에서 20분거리에 위치하여 석양의 울망졸망한 다도해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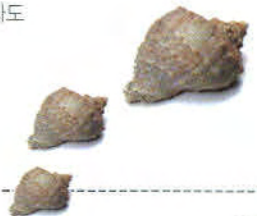
Tip

최초 입도는 1600년대 중엽에 인동 장씨 장봉산이 해남 우수영에서 가사도에 들어와 먼저 살고 있던 제주 고씨와 결혼하여 정착했다. 1896년 이전에는 진도군 제도면에 속했다가 일제강점기에 가사면으로 독립된 이후 1914년에 조도면에 통합되었다. 옛날 주민들이 돛단배를 이용하여 야간에 고기잡이를 하다 가사도를 바라보면 산 능선쪽에서 불이 켜져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말의 머리쪽 능선에 조상의 묘를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 자손들이 번창하여 고위 관리직에 등극하였다고 전한다.



찾아오시는 길

• 선 박 : 목포제2여객터미널 → 가사도, 진도평목 → 가사도



서남해의 끝단에 있는 많은 다도해들 중 가장 외해에 위치한 거차군도를 막지나면 마치 바다속에서 솟아오르는 거북이 등같이 보이는 노출된 암초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사랑하는 진도 일원의 섬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 인천으로 향하는 대형선박들은 거차군도와 맹골군도 사이의 맹골수로 통항한다. 그리고 목포항에서 만선의 꿈을 실은 어선이 동지나해 및 흑산제도 해역으로 출어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죽도(竹島)등대이다.

1907년 12월에 초점등하여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무선전신과 방향탐지기등이 설치되어 고유의 업무수행 중 태평양전쟁으로 시설물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해방후 다시 복구되어 현재는 광파표지(회전식등명기), 음파표지(에어싸이렌), 전파표지(RACON)를 운영하고 있다.

맹골군도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섬은 맹골도이고 북방의 섬이 죽도등대가 위치한 죽도이다.

- 최초점등일 : 1907. 12. 1
- 위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리 126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8.5m)
- 등질 : 백10초1섬광(FW10s)
- 특징 : 남해서부 연안의 끝자락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맹골군도에 위치한 등대이며 맹골수도를 통과하는 선박 및 대형 선박의 육지 초인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죽도항로표지관리소 ☎ 061-542-1500
- 홈페이지 : <http://mokpo.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1 죽도재넘취

죽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뱀의 머리모형처럼 쭉뺀은 모양으로 옛어른들이 상품의 미역을 채취하기 위하여 재를 넘는 다하여 재넘취라 한다.

2 관매도해수욕장

백사장 뒤로 4-500년 내의 수령의 보안림인 곰솔숲이 해수욕장의 은빛과 곰솔림의 초록빛이 대조를 이룬다.

3 병풍도수정바위

병풍도 북쪽 끝에 돛대 형상으로 외롭게 서있으며 바위 전체가 수정과 같이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새파란 쪽빛 바닷물속에 떠있는 요체는 사과이어보다도 더 푸르다.

TIP

1800년경에 최씨가 처음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대나무가 많다고 하여 '죽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한반도 서남해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에 위치한 50만㎡의 섬으로 거친 파도와 풍파에 씻겨 이루어진 기암괴석과 바다안개에 쌓여 아름다운 자태를 숨기고 있는 병풍도가 근해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도군도의 대표적인 절경의 집산지인 관매도는 빼놓을 수 없는 주변 관광지이다.



☞ 찾아오시는 길

- 버스 : 목포 터미널(1시간 소요) → 진도행 직행버스 탑승(1시간 간격으로 운행) → 진도버스터미널 도착(1시간30분 소요) → 팽목항 군내버스 승차(40~50분 소요) → 팽목항 하차
- 선박 : 팽목항 → 하조도(09:20출발 철부선/30분 소요) → 섬사랑2호(낙도보조 항로/오전11:10 경 하조도 출항) → 죽도(1시간40분 소요)

13

당사도 등대

역사적 애환과 민족혼이 서린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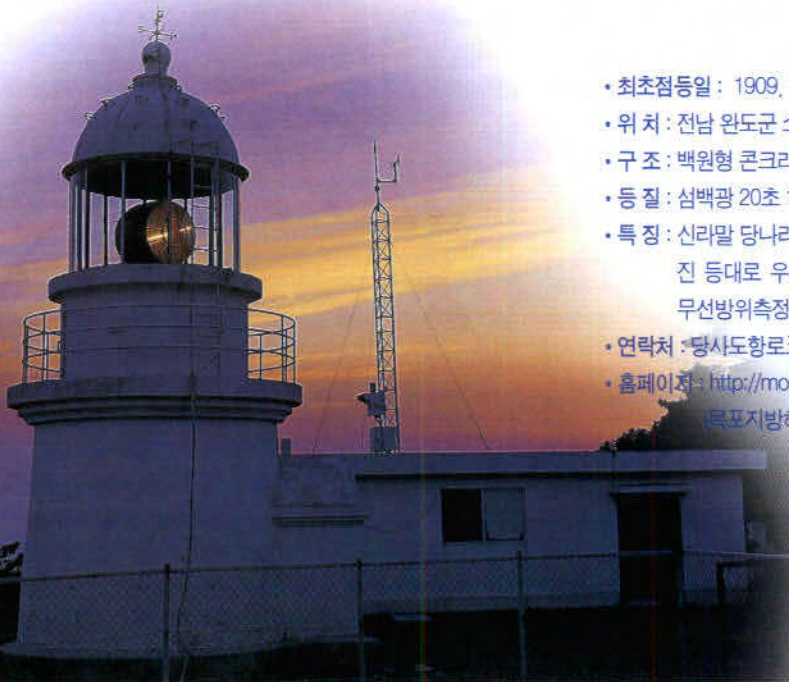
당 사도 동남쪽 당사도등대! 당사도(唐寺島)의 원래 이름은 '항문도'(港門島)였다. 그런데 지명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바꾼 이름이 공교롭게도 '자지도'(者只島)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개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당사도이다.

1982년에 새로 얻은 이 지명은 옛날 당나라를 오가던 배들이 이곳에 기항(寄港)하면서 무사고를 빌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뱃사람들 사이에선 자지도라 불리고 있다. 또한 지도책마다 당사도, 자지도, 자개도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경우도 있다.

당사도에서는 등대가 있어서 색다른 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체로 등대가 있는 섬은 절해고도의 무인도이거나 바위섬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당사도는 30가구에 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오붓한 섬 마을이다. 게다가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당사도등대는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전파표지인 무선방향탐지기가 설치되어 무선방위 측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당사도와 목포간에 고정회선을 유지해 관청용 무선전신의 형태로 선박통보 및 기상정보 전송을 하기도 했다. 현재 남해안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기준국을 감시하는 감시국이 설치되어 있다.

- 최초점등일 : 1909. 1. 1
- 위치 :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리 1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8.2m)
- 등질 : 삼백광 20초 1섬광 (FLW 20s)
- 특징 : 신라말 당나라와 교역 시 선박안전운항을 빌던 섬에 세워진 등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무선방향탐지기를 설치하여 무선방위측정업무를 수행한 등대이다.
- 연락처 : 당사도항로표지관리소 ☎ 061-553-8086
- 홈페이지 : <http://mokpo.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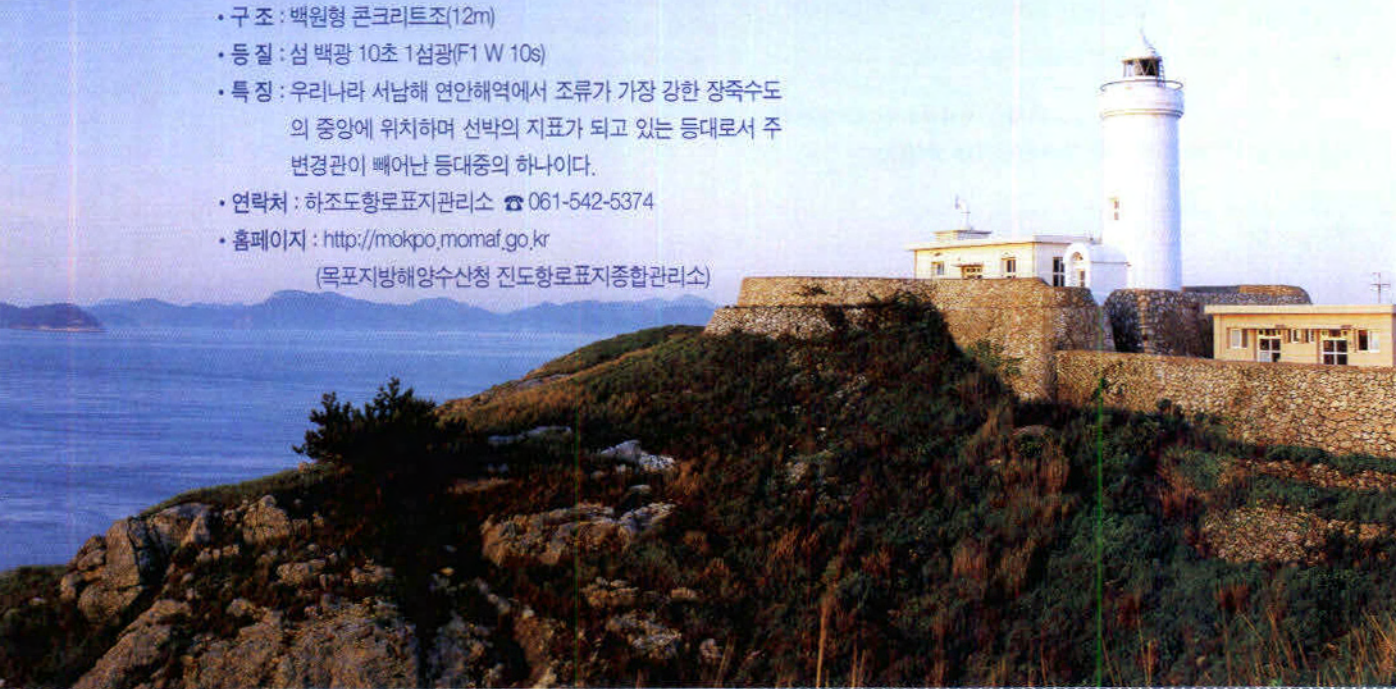


하 조도등대는 남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항로의 요충수로인 장죽수도의 안전한 뱃길 안내를 책임지고 있으며, 등대의 불빛은 39Km까지 도달한다. 진도와 하조도 사이의 항로는 조류가 빠른 곳으로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항해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조도등대는 1909년 2월 건립되어 몇 년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등탑높이는 12m로 경사가 가파른 48m의 기암절벽 위에 우뚝 서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 및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하조도의 매력은 바다와 땅의 아름다운 조화에 있다. 푸른바다위에 올망졸망 떠 있는 섬들,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소리없이 미끄러져 가는 고깃배의 모습을 보다가도 고개만 돌리면 시아에는 금새 한적한 시골 농가의 전원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신전해수욕장과 모라개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무척 아름다우며 인근 죽향도의 멸치어장과 새떼처럼 몰려있는 새기섬들을 둘러보는 섬 여행의 즐거움이 각별하다.

- 최초점등일 : 1909. 2. 1
- 위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산1-1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2m)
- 등질 : 섬 백광 10초 1섬광(F1 W 10s)
- 특징 :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해역에서 조류가 가장 강한 장죽수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선박의 지표가 되고 있는 등대로서 주변경관이 빼어난 등대중의 하나이다.
- 연락처 : 하조도항로표지관리소 ☎ 061-542-5374
- 홈페이지 : <http://mokpo.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1



2



3



1 도리산 정자 전망대

섬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날씨가 좋으면 제주도의 한라산 줄기도 감상할 수 있다.

2 모래개 간이 해수욕장

아담한 모래사장이 온통 개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신전해수욕장

고운 모래톱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고 모래사장 뒤로는 송림이 우거져 있어 해수욕을 즐긴 후에 이 송림에서 쉴 수 있다.



TIP

하조도는 동서 7km 남북 5km에 이르는 섬으로 35개의 유인도와 11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조도군도(鳥島群島)에 속한다. 조도군도는 북쪽에 있는 섬이 '상조도'고 그 아래쪽이 '하조도'이며, 작은 섬들이 마치 새 떼처럼 많이 산재해 있고 아래에 위치하여 하조도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찾아오시는 길

- 목포버스터미널 → 진도 버스터미널 → 팽목항(30분 소요)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2번 국도) → 영산강하구연 → 삼호면 웅암사거리(49번 지방도) → 금호방조제 → 해남 문내면(18번 국도) → 진도대교 → 팽목항
- 진도 팽목항 → 하조도등대(1시간 소요)
- 목포항제2여객터미널 → 하조도등대(2시간20분 소요)

바다를 향한 그리움에 하늘의 별조차 눈같이 머무는 곳!

우리나라 국토최남단 마라도는 산이수동에서 뱃길로 30여분을 가면 만날 수 있다. 태풍이라도 불면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은 나즈막한 섬 마라도는 여행객에게는 국토최남단이라는 매력을, 낚시인들에게는 우리나라 뱅에돔 낚시의 최고 포인트로써 사랑받고 있는 섬이다. 푸른 잔디밭 끝에 걸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마라도 등대는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이 육지초인표지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망봉' 등대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3월 최초 건립된 마라도 등대는 1987년 3월 새로 개축하였고 하얀색의 8각형 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16m이다. 등질은 10초에 한번씩 반짝이고 약 48km 거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마라도 관광은 걸어서 한 바퀴를 돌거나, 자전거를 임대해서 할 수 있으며 한 바퀴를 도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총 학생수가 4명인 가파 초등학교 마라 분교와 국토 최남단비, 슬픈 전설이 서려있는 애기업계당, 장군 바위 등이 있고 모 CF에서 "자장면 시키신 분"에 힘입어 생겨난 해물자장면집, 그리고 초콜릿 박물관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 최초점등일: 1915. 3. 1
- 위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642번지
- 구조: 백8각형 콘크리트조 (16m)
- 등질: 섬백광 10초1섬광 (FW10s)
- 특징: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등대이며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마라도항로표지관리소 ☎ 064-792-8507
- 홈페이지: <http://jeu.monaf.go.kr> (제주지방해양수산청)



1 산방산

종상화산으로 그 형태가 특이하다. 남서쪽 기슭에 산방굴이라는 자연 석굴이 있다. 그 안에 불상을 안치하였기 때문에 이 굴을 산방굴사라고도 한다. 굴 내부 천장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산방산의 암벽을 지키는 여신 '산방녀' 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는 전설이 있다.

2 분재예술원

세계 최대의 야외 분재공원. 한 농부의 30년에 걸친 집념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2천여점의 분재와 100여종의 희귀 수목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있다.

3 대한민국 최남단비

마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곳에서 기념촬영을 해야만 마라도를 방문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마라도 대표적 명소이다.

TIP

사람이 살지 않았던 시절의 마라도는 금단(禁斷)의 땅이었지만 매년 봄, 망종으로부터 보름동안은 마라도에 가는것이 허가되던 때였다. 200여년전 상모리에 거주하는 이(李)씨부부가 애기업게(보모)를 데리고 다른 몇명의 해녀와 함께 조업한 후 돌아가려 하였으나 비다가 거칠어지고 바람이 심해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섬을 떠나려하면 거칠어지는 바다로 인해 마라도에 갇힌 해녀들은 죽을 각오로 섬을 떠나기로 하고 잠을 청하였는데 나이많은 해녀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애기업게를 두고 가지 않으면 모두 물에 빠져 죽을거라는 계시를 받고 애기업게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이에 배를 출발시켰고 혼자 남은 애기업게는 굶주리고 무서움에 죽고 훗날 이씨부부가 돌아와 그녀의 애절한 영혼을 기려 당을 설립하고 매월 7일, 17일, 27일에 제를 지내며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였고 그후에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는 일이 드물어졌다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유람선 이용(유양해상관광 ☎064-794-6661)
제주 국제공항(제주항 여객터미널)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 산이수동 유람선선착장 → 마라도
- 여객선 이용 (삼영호 ☎064-794-3500)
제주 국제공항(제주항 여객터미널)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 모슬포 → 모슬포항 → 가파도 → 마라도



제주시민의 대표적 공원인 사라봉 중턱 언덕위에 탐라의 관문인 제주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얀 건물 하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해안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의 모습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산지등대”가 있다.

1916년 10월 무인등대로 처음 점등된 산지등대는 1917년 3월에 유인등대로 변경 되었고, 1999년 12월에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등탑을 신설하였고 기존 등대는 83년간 밝혀오던 희망의 빛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형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지등대의 등탑은 백색 원형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18m이다. 2002년 12월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풍력 회전식 대형등명기로 교체되었고, 불빛은 15초에 한번씩 반짝이며, 그 빛은 48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다.

산지등대 주변은 넓은 바다와 사라봉이 펼쳐진 주변광경이 뛰어나고 도심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등대 탐방을 겸한 체험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등대 역할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자원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태양이 지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 붉은 빛이 채워질 때 짙 생활터전으로 향하는 어선들을 반기는 파도의 하얀 포말이 노을을 벗 삼아 만들어내는 옥빛의 향연이 등대 앞쪽 바다에 펼쳐지고 등대의 불빛이 어둠을 향해 길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바다는 수백 척의 고기잡이배들이 수놓는 환상의 불꽃 잔치가 펼쳐진다.

- 최초점등일 : 1916. 10. 1
- 위치 : 제주시 권입동 340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 (18m)
- 등 집 : 섬백광 15초1섬광 (FW15S)
- 특징 :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항 배후 사라봉 중턱에 설치된 등대로 제주 북부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험숙소(산지원)가 있어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아 연중 이용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연락처 : 산지항로표지관리소 ☎ 064-722-5707
- 홈페이지 : <http://jeu.monat.go.kr> (제주지방해양수산청)



1



2



3

1 사리봉 공원

산지등대 뒤편에 위치한 공원으로 영주십경(瀛洲十景) 중의 하나인 사봉낙조(紗峯落照)로 유명한 곳이다. 저녁노을 붉은 해가 온 바다를 붉은 비단처럼 염색할 때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봉우리라 하여 사리봉(紗羅峰)이라 이름 지어졌으며 제주시민의 대표적 공원이다.

2 별도봉 장수산책로

"멀리 보며 즐겁게 산책하는 길"로 통하며, 도심공간에 눌렸던 기(氣)도, 가슴까지 꽉 막아버렸던 버거운 세상일도 이 길을 걸다보면 말끔히 사라지고 만다.

3 용두암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있는 기암(奇岩)으로 용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용이 승천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TIP

행정구역상

제주시 건입동에

속하는데도 이곳을 왜 "산지등대"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산지란 명칭은 1702년(조선 숙종 28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순력중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제작토록 한 「탐라순력도」에 의하면 산지촌(山地村)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의 문헌 「제주도 통권 42호 1969년」에 의하면 처음에는 산저(山底)였던 것이 나중에 산지(山地)로 되었다 한다. 즉 한라산에서 발원한 "산지천" 상류의 가락룻물(오현단 동쪽)이 건입포를 지나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산저(山底)라고 하였던 것이 "산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설과 한라산 줄기인 사리봉이 북으로 뻗어 내려오다 해안가에 이르러 다시 높이 솟아올라 "산지"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이런 이곳의 옛 지명을 따서 산지등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국제공항(300번 시내버스) → 제주여상 → 산지등대
- 제주여행센터미널 → 산지등대



제주도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주도의 다도해 추자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황간도, 추포도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추자10경'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상추자도의 해발 125m 산정상에 추자도등대가 있다.

추자도등대는 제주해협과 부산, 목포 등 내륙을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 그리고 동중국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바다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 2월 27일 점등된 추자도등대는 규모가 작고 노후되어 철거하고 2005년 12월 그 자리에 사무실과 홍보관 등을 갖춘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났다. 등탑의 높이는 24m로 기존(6.7m)보다 높게 지어졌으며, 불빛은 20초에 한번씩 반짝이고, 그 빛은 38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다.

제주도의 다도해라 불릴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 우두일출(牛頭日出) 등 추자10경으로 대표되는 빼어난 경치와 더불어 풍성한 어족어장을 갖춘 청정 해양자원의 보고이며 흑비둘기 및 습새의 서식지인 사수도(천연기념물 제333호)와 최영장군 사당, 박씨처사각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도에 속하나 언어 등 문화적인 관습은 전라남도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80. 2. 27
-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영흥리 산26-4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 (24m)
- 등질 : 심백광 20초1삼광 (FW20s)
- 특징 : 제주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등대로 제주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며 추자군도의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연락처 : 추자도항로표지관리소 ☎ 064-742-3780
- 홈페이지 : <http://jeju.momaf.go.kr> (제주지방해양수산청)

1 최영장군 사당

제주도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자도 백성들에게 어망을 만들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생활에 변혁을 가져오게 하여 주민들이 장군의 위덕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짓고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1



3

2 고인돌

상추자도 대서리에 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인돌로 보존가치가 높다. 성인 10명이 감싸 안아야 할 정도로 아주 큰 고인돌로 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2



4

3 장작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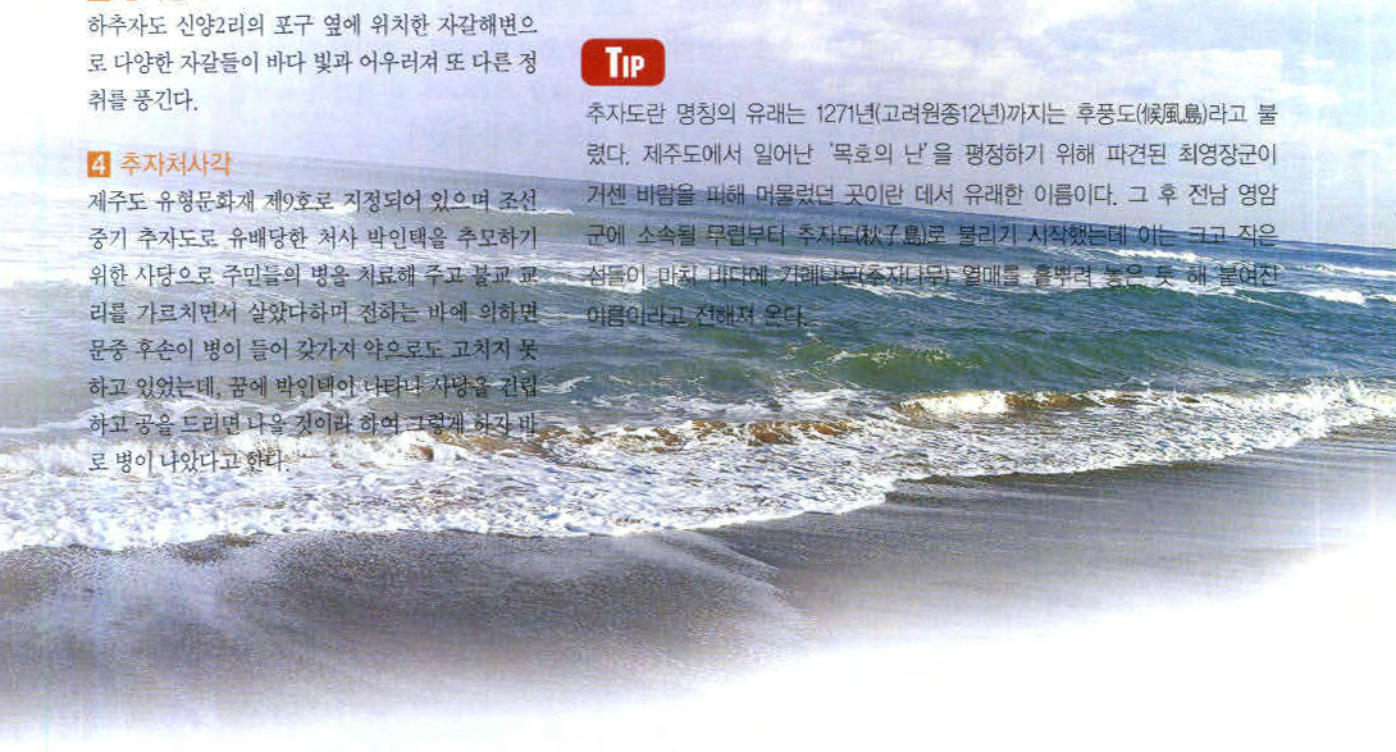
하추자도 신양2리의 포구 옆에 위치한 자갈해변으로 다양한 자갈들이 바다 빛과 어우러져 또 다른 정취를 풍긴다.

4 추자처사각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중기 추자도로 유배당한 처사 박인택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으로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불교 교리를 가르치면서 살았다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문중 후손이 병이 들어 갖가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꿈에 박인택이 나타나 사당을 건립하고 공을 드리면 나를 짓이라 하여 그렇게 하자 바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

TIP

추자도란 명칭의 유래는 1271년(고려원종12년)까지는 후풍도(侯風島)라고 불렸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파견된 최영장군이 거센 바람을 피해 머물렀던 곳이란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 후 전남 영암군에 소속될 무렵부터 추자도(秋子島)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바다에 가래나무(추자나무) 열매를 흩뿌려 놓은 듯 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져 온다.



📍 찾아오는 길

- 제주여객터미널(컨티넨탈호 매일 14:00) → 추자항(상추자도)
- 목포여객터미널(컨티넨탈호 매일 08:00) → 추자항(상추자도)
- 제주여객터미널(온바다페리호 매일 15:00) → 신양항(하추자도)
- 완도여객터미널(온바다페리호 매일 08:00) → 신양항(하추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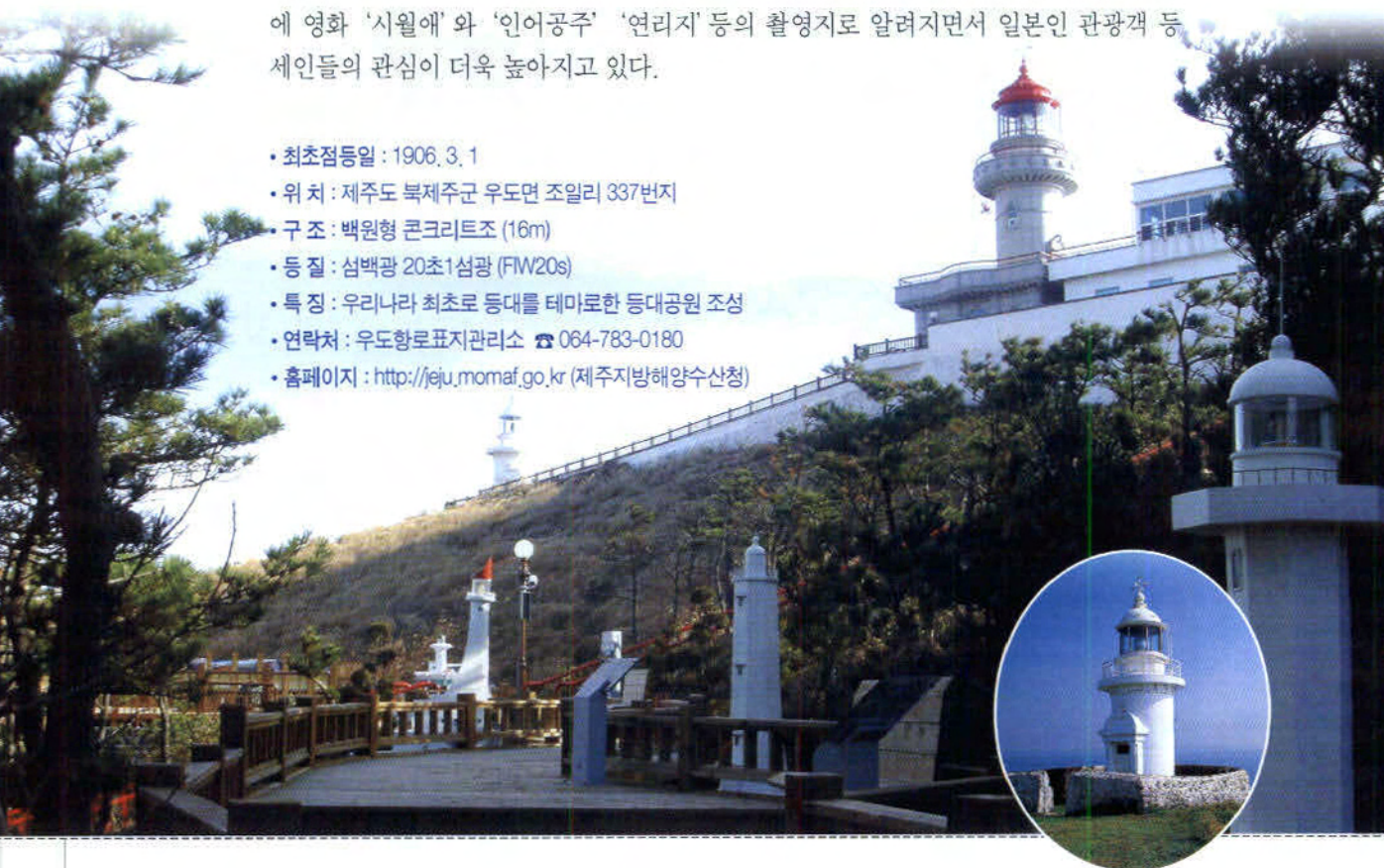
우도의 풍경과 함께 세계의 독특한 등대를 만나는 등대 테마파크가 있는 곳...

제주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우도는 제주도 연안에 산재하는 부속 도서 중 가장 큰 섬이다. 섬의 형태가 소가 드러누워 머리를 내민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우도(牛島)라 불린다.

우도 등대는 2003년 12월 높이 16m 원형콘크리트조의 새로운 등탑 신축과 더불어 IT기술을 접목하여 국내기술로 개발한 대형 회전식 등명기를 설치 50km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광력을 증강시켰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 한 등대공원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홍보·전시실 및 항로표지 3D체험관과 세계7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등 우리나라 및 세계의 유명한 등대 모형 14점을 전시하여 관광객의 손과 마음을 바쁘고 즐겁게 한다.

우도는 산호가 부서져 형성된 하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산호해수욕장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우도8경' 과 청정해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또한 최근에 영화 '시월애' 와 '인어공주' '연리지'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일본인 관광객 등 세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06. 3. 1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조일리 337번지
- 구 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 (16m)
- 등 질 : 삼백광 20초1섬광 (FW20s)
- 특 징 :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한 등대공원 조성
- 연락처 : 우도항로표지관리소 ☎ 064-783-0180
- 홈페이지 : <http://jeju.momaf.go.kr> (제주지방해양수산청)





1



2



3



1 우도박물관

폐교된 연평초등학교를 보수해 새롭게 꾸민 박물관으로 제주도 지역의 학습체험 및 이론편육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로 나가야 볼 수 있는 수억 년 전의 화석이나 광물 등을 제주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 9월 1일 개관하였다.

2 서빈백사

우도 서쪽 산호 모래사장으로서 세월이 지날 수록 조금씩 자란다고 하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감도는 듯 하다.

3 동굴 음악회

1992년 '동굴소리연구회'에서 제주의 여러 동굴들을 직접 답사해 실험을 시작하여 1997년 처음 동굴음악회를 열었다. 동굴이 지닌 자연음향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굴 음악회

TIP

먼 옛날, 물 부족으로 고민하던 우도 주민들은 섬 남서쪽의 동천 진동에 우물을 열심히 팠다. 그러나 기대하던 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관(地官)을 불러 연유를 물었다. 지왈, "여자없이 어떻게 자식(물)을 낳는가, 각시를 데려와라. 그것도 서쪽 어두운 곳의 색시 여야 해."라고 했다. 주민들은 수소문 끝에 바다 건너 구좌읍 종달리 '서느렁이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발견했다. 정성껏 제(祭)를 지내고 물을 항아리에 담고 새색시를 모셔오듯 가마에 실었다.

이어 섬으로 운반해온 생수를 우물에 쏟아부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습기가 금방 차면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곳의 물보다 더 깨끗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국제공항(제주항여객터미널) →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 우도선착장(버스타어, 자전거, ATV, 오토바이 이용 가능)
- 제주국제공항(제주항여객터미널) →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종달리(종달항) → 우도선착장(버스타어, 자전거, ATV, 오토바이 이용 가능)

거문도등대는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써 1905년 4월 12일 세워진 뒤 지난 100년 동안 남해안의 뱃길을 밝혀왔다.

등탑은 높이 6.4m의 원형백색으로 연와, 석 및 콘크리트 혼합구조물이다. 등명기는 3등 대형으로 유리를 가공한 프리즘렌즈를 사용하였으며, 수은통에 등명기를 띄우고 중추로 회전시켜 15초 간격으로 불빛을 밝혀 약42km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 설치되었다. 노후 된 시설을 대신하여 33m 높이의 새로운 등탑이 신축되면서 2006년 1월부터 선박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00년 동안 사용한 기존 등탑은 등탑 외벽과 중추식 회전장치 등을 보수하여 해양유물로 보존하고 있다.

거문도는 섬 일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거문도등대는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이 여행하는 필수 코스이다.

여객선 선착장이 있는 거문리에서 등대까지 걸어서 약 1시간 남짓 걸리는데 삼호교를 거쳐 유림해수욕장을 벗어나면 물이 넘나드는 '무념이'를 지나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바다의 기암절벽을 낀 1.2km 거리의 산책로가 펼쳐지며 길 양쪽으로 길게 들어선 동백나무 숲길을 걷다보면 세상 모든 상념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등대 옆 절벽 끝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백정이 있다.

- 최초점등일 : 1905. 4. 12.
- 위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50-1
- 구조 : 백6각형 콘크리트조(33m)
- 등질 : 삼백광 15초 1심광(FW15s)
- 특징 : 우리나라에서 붉은 벽돌로 건립된 최초의 등대인
(구)거문도등대와 함께 최신시설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남해중부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가 되고 있다.
- 연락처 :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 ☎ 061-666-0908
- 홈페이지 : <http://www.yosu.momaf.g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백도

99개의 무인군도로 거문도 동쪽 28km 지점에 위치, 100개에서 1개가 모자란다고 하여 일백백(百)에서 한일을 빼고 백도(白鳥)라 불린다.

2 유림 해수욕장

동백과 해너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운 해수욕장, 인근에 노인암, 거문도 등대가 있어 가볍게 바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3 거문도 백도 은빛갈치 바다축제

매년 7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달빛 백도 투어, 은빛 갈치낚시체험, 고등잡기 체험, 거문도 등산대회, 폐배타기체험, 거문도 뱃노래 시연 등이 펼쳐진다.

TIP

거문도는 옛날에 삼도, 삼산도, 거마도 등으로 불리어졌으나 영국의 거문도 정령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청나라 제독 정여창이 거문도를 빙문하여 이 섬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문장들이 많다는 의미인 '거문(巨文)'으로 개칭하도록 우리나라에 권유해 그 때부터 '거문도'로 이름지어졌다 한다.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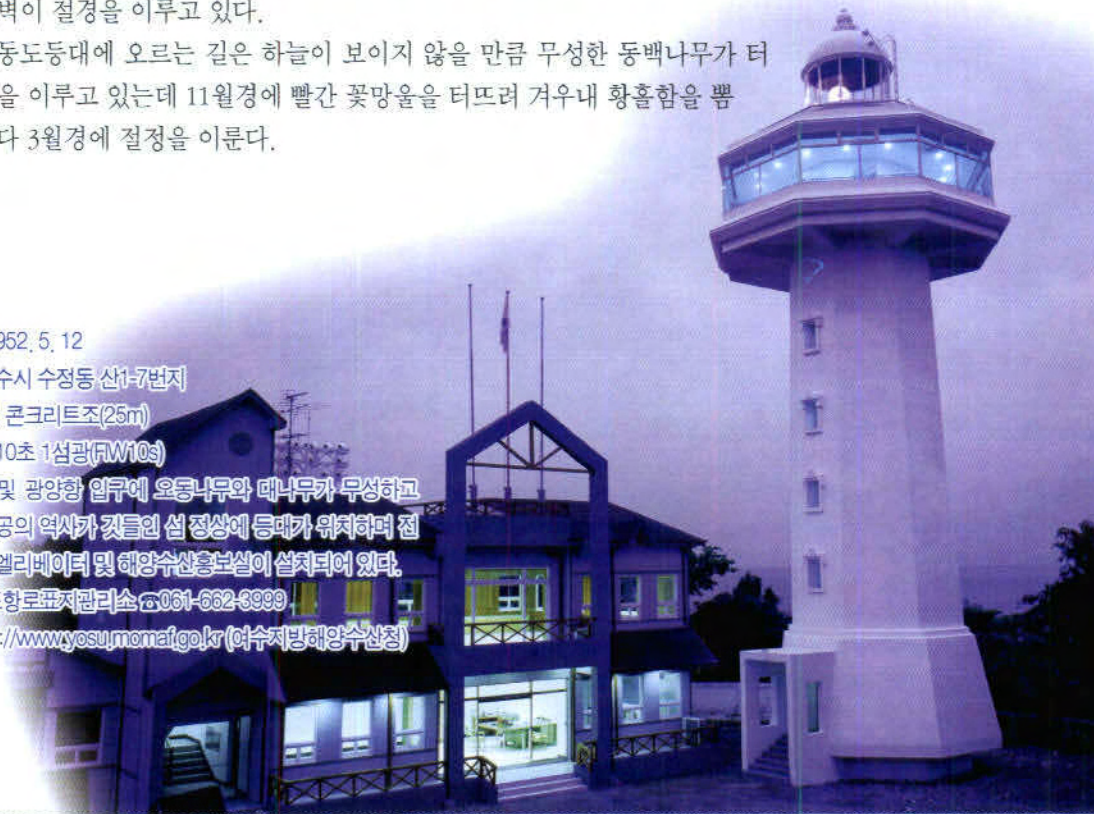
- 여수 시외버스터미널(차량 25분) → 여수항 여객선터미널(1일 2회 2시간20분)
→ 거문도항여객선터미널(택시 10분/도보 1시간) → 수월산입구(도보 30분)
→ 거문도등대
- 녹동 시외버스터미널(도보 20분) → 녹동항 여객터미널(1일1회 1시간10분)
→ 거문도항여객선터미널(택시 10분/도보 1시간) → 수월산입구(도보 30분)
→ 거문도등대

오동도(梧桐島)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명물이자, 미항 여수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오동도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오동도등대는 지난 1952년 5월 12일 처음 불을 밝혔다. 등탑은 높이 8.48m의 백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었으나 2002년에 높이 27m의 백8각형으로 개축하였다. 등탑 내부는 8층 높이의 나선형 계단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에 전망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수, 남해, 하동 등 남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무동 2층에는 전시실을 마련하고 등대와 바다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등명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프리즘렌즈 회전식대형등명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0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등대 불빛은 46km 떨어진 먼 바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동도 섬 전체는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구에 모형거북선과 관옥선,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 세워진 2012년 세계박람회홍보관, 음악분수 등이 있고 남쪽 해안가 쪽으로는 소라바위, 병풍바위, 지붕바위, 코끼리바위, 용굴 등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오동도등대에 오르는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성한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11월경에 빨간 꽃망울을 터뜨려 겨우내 황홀함을 뽐내다 3월경에 절정을 이룬다.

- 최초점등일 : 1952. 5. 12
- 위치 : 전남 여수시 수정동 산1-7번지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25m)
- 등질 : 심백광 10초 1섬광(FW10s)
- 특징 : 여수항 및 광양항 입구에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하고 이 층무공의 역사가 깃들인 섬 정상에 등대가 위치하며 전망대용 엘리베이터 및 해양수산홍보실이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처 : 오동도항로표지관리소 ☎061-662-3339
- 홈페이지 : <http://www.yosu.momaf.g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만성리해수욕장

만성리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과는 달리 검은 모래로 유명하다. 검은 모래로 점질을 하면 신경통과 부인병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향일암

암자가 떠오르는 해를 향해 있다는 향일암(문화재 자료 제20호)은 범종소리와 함께 맞는 해돋이와 자연경관이 빼어나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3 돌산대교

길이 450m 폭 11.7m의 사장교인 돌산대교는 여수시내와 돌산도를 연결하였으며 다도해와 여수항을 내려다 볼 수 있을뿐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경으로도 유명하다.

TIP

고려 공민왕 때 요승 신돈은 전라도라는 전(全)자가 사람인(人)자 밑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있는데다 남쪽 땅 오동도라는 곳에 서 조인 봉황새가 드나들어 고려왕조를 맡을 인물이 전라도에서 나올 불길한 예감이 들어 봉황새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오동도 오동나무를 베어 버린 전설이 있다.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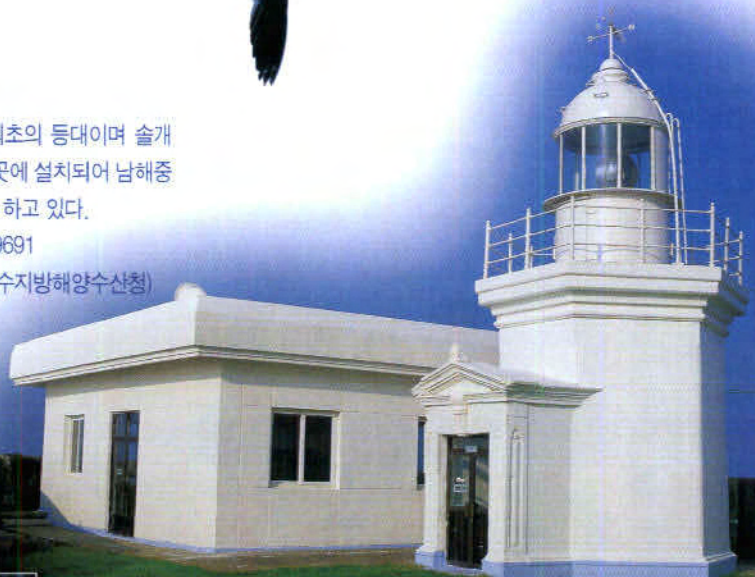
- 여수역(도보 15분) → 오동도입구(도보 30분) → 오동도등대
※ 여수역에서 오동도입구까지 버스 수시 운행
- 여수시외버스터미널(버스 10분) → 휴게소 정류장(도보 15분)
→ 오동도입구(도보 30분) → 오동도등대



1910년 10월 4일 건립된 소리도등대는 백6각형 콘크리트 구조이며, 등대 내부에는 나선형의 철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등탑 높이는 9.2m에 불과하지만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82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며, 12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등대 불빛은 42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다. 지금은 여수, 광양항을 드나들거나 서해안에서 부산쪽으로 운항하는 선박들이 이 등대를 주로 이용한다.

섬의 모양이 솔개같이 생겼다하여 소리도로 불리다 솔개 연(鳶)자를 써 연도라 부르게 되었다. 연도는 등대와 인근의 코끼리 바위, 솔팽이 동굴 등이 해안의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이다. 특히 옛날 네덜란드 상선의 보물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 세인들이 흥미를 갖는 곳이기도 하다.

- 최초점등일 : 1910. 10. 4
- 위치 : 여수시 남면 연도리 2030-2번지
- 구조 : 백6각형 콘크리트조(9.2m)
- 등질 : 섬백광 12초 1섬광(FW12s)
- 특징 : 우리나라에서 6각형 구조로 건립된 최초의 등대이며 솔개 형상을 닮은 섬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설치되어 남해중부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소리도항로표지관리소 ☎ 061-666-9691
- 홈페이지 : <http://www.yosu.momaf.g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1 안도해수욕장

바닷물이 맑고 검은 모래점질로 유명하며 해변이 아늑하고 경관이 수려할뿐 아니라 인근 바닷가에서 사계절 낚시를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2 망산

장지에서 40여분이면 오를 수 있는 해발 343.6m의 망산은 산책로가 잔디, 통나무, 솔방울, 돌계단, 흙 등으로 정비가 잘되어 있고 정상에서 볼 수 있는 해돋이와 바다로 떨어지는 해넘이는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3 금오도 해안드라이브

함구미에서 우학리 우실까지 14km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넓은 바다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많은 섬들이 기암괴석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가에는 동백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2



3

TIP

연도는 여수권 최고의 감성돔 낚시터로 꼽히는 곳이다. 기암절벽의 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어종과 다양한 포인트 등 모든 갯바위 낚시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낚시 포인트는 소룡단, 역포, 철탑아래 등이다. 주요어종은 감성돔, 돌돔, 볼락, 참돔, 농어, 학꽂치, 흑돔 등이 있다.



찾아오시는 길

- 여수역 → 여수 중앙동여객선부두(차량이동시 15분 소요)
※ 시내버스 이용 시 1번, 2번
- 여수 시외버스터미널
→ 여수 중앙동여객선부두(차량이동시 25분 소요)



백도(白也島)는 면적 3.08km²의 비교적 작은 섬으로 멀리서 보면 “밤이 새기를 품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백호도라 불리다가 1897년 돌산군 설립 당시 백야도로 개칭하였다. 백야도등대는 1928년 12월 10일 높이 8.8m의 백색4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최초 건립되었으며, 1983년 11월 26일 현재의 높이 11.1m의 백원형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되었다. 현재 백야도등대의 등대 불빛은 35km 외해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형등명기를 설치하여 여수⇔나로도 간 이용선박의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야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수시 화정면 횡도 선착장에서 도선을 이용하였으나, 2005년 4월 14일 백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백야대교가 설치되어 차를 타고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등대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등대직원이 손수 만든 조각품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 최초점등일 : 1928. 12. 10
-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산34-2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1.1m)
- 등질 : 삼백광 20초 1삼광(FW20s)
- 특징 : 흰색띠를 두른 듯한 돌산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등대로서 남해중부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 ☎ 061-685-7931
- 홈페이지 : <http://www.yosu.momaf.go.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2



3

1 소호 요트경기장

1986년 아시안게임때 요트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바다에 떠있는 요트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낭만이 있는 장소이다.

2 장동 해수욕장

화양면의 남쪽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수심이 얇고 경사가 완만하며 잘 알려지지 않아 느긋하고 조용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부터 순천만 하닷가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일품이다.

3 용문사

화양면 용주리 마거산 중턱에 있는 사찰로, 신라 효소왕 원년에 당나라 고승 도증법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TIP

2005년 4월 14일 백야대교가 설치되어 차량운행이 가능해지면서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수오션리조트 등 화양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찾아오시는 길

- 시외버스터미널(차량 60분) → 백야도정류장(도보 20분) → 백야도등대
- 여수역(도보 15분) → 휴게소정류장(차량 1시간 15분) → 백야도정류장 → 백야도등대(도보 20분)



등대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이곳!

남해바다의 풍경과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통영은 경남 거제에서 전남 여수에 이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

비취색을 띠는 청정해역에는 충절이 서린 호국의 성지인 한산도와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매물도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한려수도 삼백리 물길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경남 통영은 비취빛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15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배와 요트등이 연출하는 빼어난 풍광으로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기도 한다. 더욱이 맑은 자연과 함께 온화한 기후, 한산대첩의 역사적 문화유산에다 극작가 동랑 유치진과 시인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소설가 박경리, 미술가 김용주, 전혁림, 이한우, 김형근 등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이 태어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곳곳에서 역사와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소매물도 등대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1917년 무인등대로 건립되었으나, 1940년 유인등대로 전환되었다. 소매물도등대의 등탑은 콘크리트 구조이며 높이는 16m이다. 하얀색의 원형 등탑은 자태가 고풍스러울 뿐만 아니라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 대형 회전식 등명기를 이용해 약 48km거리까지 불빛을 비추며 남해안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최초점등일 : 1917. 8. 5.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 소매물도 등대섬.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6m)
- 등질 : 삼백광 13초 1섬광(FW13s)
- 특징 : 남해동부연안 항로에 말꼬리형상의 섬에 위치하는 등대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하루에 두 번 열목개지칼길(모세의 기적)이 열린다.
- 연락처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055-641-6948
- 홈페이지 : <http://masan.momaf.go.kr>(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매물도는 크게 유인도인 대매물도와 소매물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제도 남단에 위치한 소매물도(小每勿島)는 면적이 2.51km²에 불과한 작은 섬으로 본섬에는 20여가구가 거주하며, 행정구역상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속한다. 소매물도의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만형 격인 매물도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대마도가 불과 70여 km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매물도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천연전망대인 망대봉 정상에서는 바로 앞에 등대섬이 내려다 보이고, 여기서 보는 등대섬의 전경은 소매물도 절경중 최고로서, 소매물도와 등대섬이 어울려 빛어내는 멋진

모습을 찍기 위해 우리나라 섬들 가운데 사진 작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푸른 바다를 배경삼아 등대섬 중턱에 솟아있는 등대는 여행작가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로 평가 받아 시중 여행관련 잡지에도 자주 소개되며, 각종 영화의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하루에 2회 썰물때가 되면 소매물도의 본섬과 등대섬 사이에는 약 80m폭의 열목개 자갈길(모세의 기적)이 열린다. 물위로 드러난 몽돌 해변을 지나 등대섬으로 건너가면 새하얀 암벽과 갖가지 형상의 바위들, 눈이 시리도록 새파란 물빛과 아스라한 수평선, 들꽃이 흐트러지게 핀 초원과 우뚝 솟은 등대와의 어울림은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준다.

소매물도는 내해(內海)와 외해(外海)가 맞닿은 길목이다 보니 모진 바람과 거센 파도가 연중 쉴 새 없이 몰아친다. 해안절벽에는 억겁의 세월동안 온몸으로 파도와 바람을 막으며 만들어낸 천태만상의 기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특히 남쪽해안 바위벼랑의 위용이 불 만하다.

등대섬 바로 뒤 절벽에는 아치형의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글씨가 쓰인 바위가 동굴을 이루고 있어 '글썩이굴'로 불린다. 중국 진시황제의 사자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러 이 곳까지 왔다가 이 동굴을 보고 천장 위에 '서불과차'(徐芾過此)라 써 놓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또 임진왜란 당시 왜장이 패전의 심정을 담은 '칠연율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벽도 발견되었다.

배에서 내려서 등대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등대섬과 소매물도 본섬을 이어주는 작은 바닷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소매물도쪽을 잘 보면 마치 공룡이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볼 수 있으며, 배편으로 등대섬 뒤를 돌아 소매물도로 나갈 때에 등대와 기암괴석을 함께 배경으로 하면 꽤 훌륭하면서도 기이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소매물도는 또한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조금 깊은 곳에서 스쿠버다이빙도 가능하다. 배를 타고 섬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소매물도 여행의 백미이다. 불쑥 솟아오른 갯바위 사이로 부서지는 파도, 바다 안개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소매물도를 찾는 관광객들중에선 이미 이곳의 정취를 느껴본 사람들이 많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진한 감동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매물도는 또한 어디랄 것도 없는 천혜의 갯바위 낚시터다. 봄여름에는 참돔, 농어, 불락, 돌돔, 가을·겨울에는 삼치, 감성돔 등의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매물도는 통영항에서 정기 여객선으로 약 1시간정도 걸리며 하루 2회 주말 3회,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명사마을에서 하루 4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소매물도에서 내려서 등대섬까지 갔다 오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 섬에서 혹시 1박을 할 경우라면 민박을 이용할 수 있고, 물을 비롯하여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가야 한다.





1 비진도해수욕장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외항마을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550m나 되는데 서쪽해변은 천연 백사장으로 동쪽해변은 붕돌해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해변으로 수온이 알맞아 여름철 휴양의 최적지로 꼽힌다.

2 제송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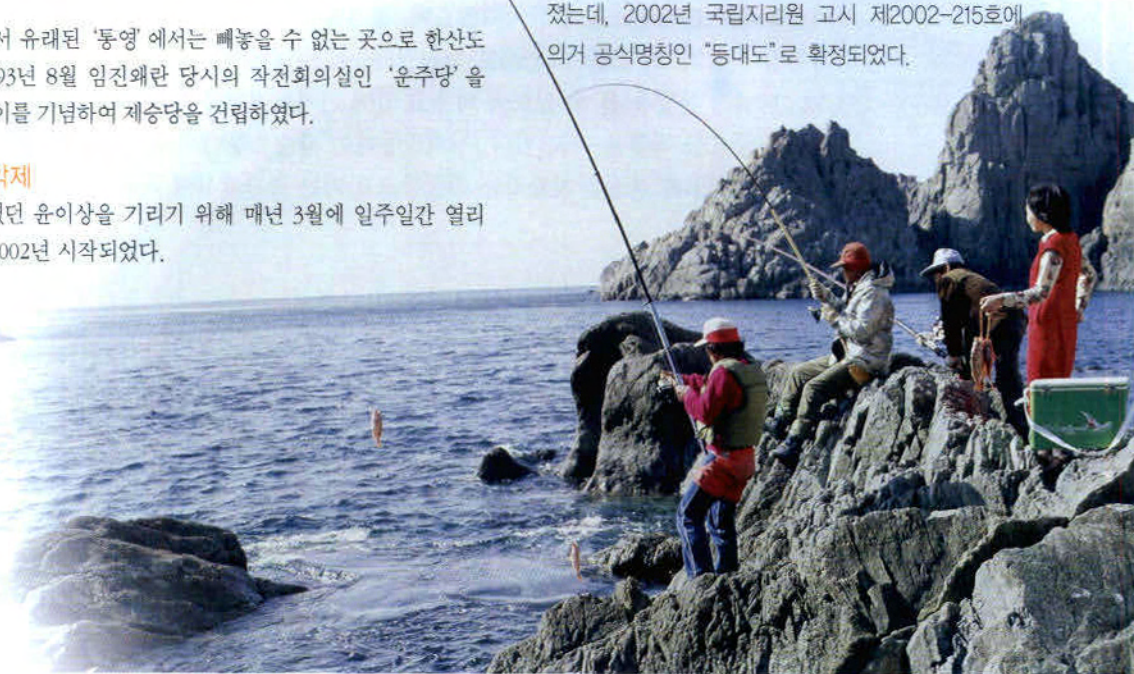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유래된 '통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한산도 깊숙한 이곳에 1593년 8월 임진왜란 당시의 작전회의실인 '운주당'을 세웠는데, 1790년 이를 기념하여 제송당을 건립하였다.

3 통영 국제음악제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에 일주일간 열리는 국제음악제로 2002년 시작되었다.

TIP

매물도라는 명칭은 본래 본 섬인 대매물도의 형상이 '매물' 즉 '매밀' 처럼 생겨서 붙여졌다고 한다. 등대섬의 본래 이름은 해금도(海金島)이지만 등대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등대섬으로 불리워졌는데, 2002년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2-215호에 의거 공식명칭인 "등대도"로 확정되었다.



📍 찾아오시는 길

-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마산IC(14번 국도) → 고성 → 통영 → 여객선(유람선)터미널
-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통영IC → 여객선터미널(유람선터미널)
-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통영시외버스터미널 → 여객선터미널
- 통영여객선터미널 → 소매물도페리호 → 소매물도등대
- 거제 저구여객선터미널 → 구경호 → 소매물도등대



우 리나라 남해안에서 제주도에 이어 가장 큰 섬 거제도! 그 동남쪽 끝단에 천연해식동굴과 기암괴석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에 서이말 등대가 있다.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거제도는 10개의 유인도와 52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거제군의 본도로서, 전체 면적이 378.795km²의 우리나라 섬 중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로 큰 섬이다. 거제도는 모래밭, 몽돌 해수욕장, 동백숲과 소나무숲, 기암괴석해안 등 섬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추고 있는 무한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서이말등대는 1944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총 3명의 등대원이 근무하는 유인등대로서 백색원형 콘크리트구조물(10.2m)로 세워졌다. 이 등대에서는 20초마다 1번씩 20마일(37km)밖에서 불빛을 볼 수 있도록 비추고 있어 거제도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항로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이말등대는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해금강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44. 1. 5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48-2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0.2m)
- 등질 : 섬백광 20초 1섬광(F W 20s)
- 특징 : 거제도 동쪽 끝단에 쥐의 귀를 닮은 듯한 형상의 섬에 이 등대가 위치하며, 남해동부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에 무인화된 홍도등대를 원격제어로 점·소 등 운영하고 있다.
- 연락처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055-681-1607
- 홈페이지 : <http://masan.momaf.go.kr>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학동몽돌해수욕장

지형이 학이 비상하는 모습과 흡사하다하여 유래되었는데, 몽돌 해변이 길이 약 1.2km, 폭 50m, 면적 3만km²에 펼쳐져 있으며, 약 3km의 주위 해안을 따라 펼쳐진 천연기념물 제233호인 동백림야생군락지와 팔색조가 유명하다.

2 해금강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마을 남쪽 약 500m 해상에 위치하며, 두개의 큰섬으로 연결한 해금강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1971년 명승2호로 지정되었다. 해금강의 사자바위사이로 떠오르는 해는 애국가의 배경화면으로 장관을 연출한다.

3 외도해상농원

겨울연가의 20회 촬영지로서, 4만4천평의 천연동백림숲과 여러 종의 아열대식물이 있으며, 전망대, 조각공원, 야외음악당,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다.

TIP

'서이말'이란 지명은 땅끝의 형국이 마치 쥐의 귀를 닮았다고 하여 '쥐귀말'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찾아오시는 길

-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마산IC(14번 국도) → 통영 → 장승포(신현) → 지세포 → 구조라방향 → 서이말등대
-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동통영IC → 장승포(신현) → 지세포 → 구조라 방향 → 서이말등대
- 서울 남부버스터미널 →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 시내버스(구조라방향 약수터 하차) → 서이말등대
- ※ 등대입구 4km이전부터 민간인출입통제(군사시설보호구역)

25

영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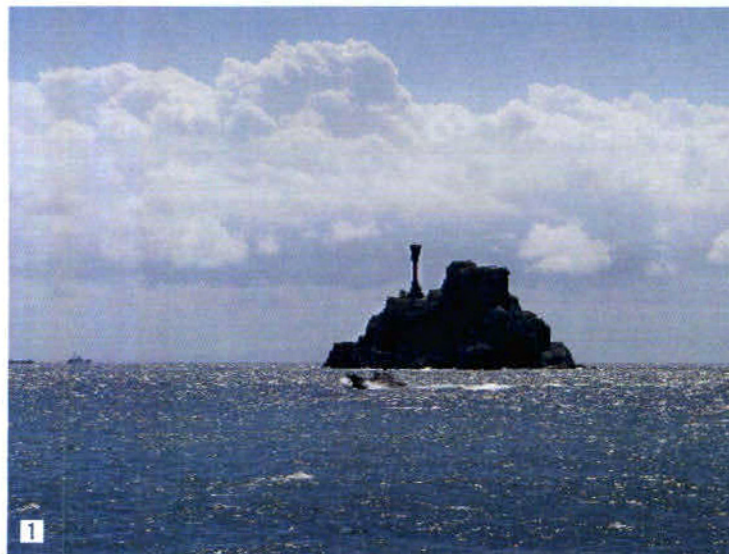
바다를 향한 무한의 빛을 밝히는 영도등대

부 산시 영도구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1906년 12월에 설치되어 지난 100여년 동안 부산항의 길목에서 영롱한 불빛을 밝혀왔으나 시설 노후로 2004년에 새로운 등대 시설물로 교체되어 부산지역의 해양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새로 건립된 영도등대는 등대시설, 예술작품 전시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등 3개동(연면적 720m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대시설은 기존 등대와 같이 백색의 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높이가 35m이며 불빛은 40km까지 나아간다. 전시실(see & sea)은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사 박물관은 등대 바로 옆 신선바위 등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과 백악기 공룡서식지로 추측되는 이곳을 기념하는 공룡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영도등대에 오시면 등대와 바다, 친해의 절경 그리고 덤으로 해양갤러리에서 미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친숙한 해양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며 영도등대는 새천년의 빛을 밝히며 해양문화진흥을 향한 힘찬 도약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 최초점등일 : 1906. 12. 1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054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35m)
- 등질 : 섬백광 18초 3섬광(F3W18s)
- 특징 : 우리나라 최대항만인 부산항 초입의 해안절경이 수려한 태종대에 위치하며 대한해협과 부산항을 운행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한다.
- 연락처 : 영도항로표지관리소 ☎ 051-405-1201
- 홈페이지 : <http://www.pusanmonaf.go.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주전자섬

태종대 앞 바다 작은 돌섬 가운데 하나가 주전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 섬을 주전자섬(또는 생도)이라고 부른다. 이 주전자섬에 대하여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이 섬에서 불을 취급하거나 용변을 보면 큰 화를 당하며, 남녀가 정을 일으키면 급살을 맞는다고 하여 이 곳을 찾는 선남선녀는 없다고 한다.

2 태종대 유람선

영도등대 아래길로 내려가다보면 태종대 유람선을 탈 수 있다. 영도등대 전경을 해상에서 볼 수 있으며, 감지 해변까지 운항하며 태종대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3 태종대 공원

백영도의 최남단으로 뻗은 구릉지로 기암절벽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며, 북쪽으로 오륙도(五六島)가 보이고, 맑은 날에는 대마도(對馬島)가 보인다. 모자상(母子像), 신선마위, 망부석, 거북마위 등 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 등이 볼 만하다.



TIP

1906년 12월 시작된 영도등대의 처음 명칭은 목장이라는 뜻의 목도(牧島)등대라 하였으며 1948년 1월 4일 절영도(絶影島)등대로 개칭하였다. 절영도라는 지명은 영도에서 군사훈련용 말을 많이 길렀는데 영도에서 기른 말들은 비호같이 빨라 순식간에 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하여 절영도라 불리었으며 1881년에는 절영도진(絶影島鎭)이 설치된 바 있고 1951년 9월 1일 영도출장소(影島出張所)가 설치되었는데 행정면의상 절(絶)자를 빼고 영도(影島)라고 하였다.



찾아오시는 길

- 시내버스(부산역:88번, 101번) → 태종대중점 → 태종대공원(등대까지 약2km) → 영도등대(5분)
- ※ 2006년 5월경 태종대 일주도로 관광열차 운행예정
- 해양대학교 → 하리하차 → 관광유람선(30분) → 등대선착장

가덕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자리잡아 동으로는 사하구 다대포, 서남북은 거제도 동북바다, 북으로는 유라시아와 환 태평양의 관문이면서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건설한 부산항신항(2006.1.19 개장)과 접하며 진해시 용원과의 거리는 4km, 인근의 거제도와 거리는 10km 정도이다.

가덕도가 해상교류 및 군사적으로 중요시 된 것은 조선 중종 39년(1544년) 가덕진과 천성진을 설치하여 임진왜란 때는 치열한 격전장이기도 했던 곳이었으며, 현재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중요 요충지로서 가덕도등대는 대한제국의 말기인 1909년 12월에 건립되었으며 옛 가덕도 등대건물은 서구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하나로 2003년 9월 16일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존 시설로 지정하기로 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2002년 새로 지어진 지금의 등대는 8각으로 된 돌출형이며 등탑높이는 40.5m로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높은 등대이다.

- 최초점등일 : 1909. 12. 1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번지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40m)
- 등질 : 삼백광 12초 1섬광(FW12s)
- 특징 : 낙동강 하구연에 위치하며 조선시대부터 봉화를 올려 뱃길을 안내하였던 언대봉 등 고대역사를 간직한 섬으로 등대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연락처 : 가덕도 항로표지관리소 ☎ 051-971-9710
- 홈페이지 : <http://www.pusan.momaf.go.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





Tip

옛 등대 시설은 사무실과 숙소, 등탑이 연결된 복합건물 형태로써 중앙에 높이 9.2m의 등탑이 세워져 있으며, 붉은 벽돌과 미송을 사용했고 출입구 천정에는 그 당시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 모양의 문장이 새겨져 있으며, 함석으로 된 지붕은 부식방지를 위해 함석 위에 피치타르가 덮혀져 있다.



1 송어축제

가덕도 대항마을에서는 150년전 전통 재래식 어로 방법인 "육수장망"으로 송어를 잡는 축제를 매년 4월-5월 사이에 갖는다.

2 대원군 척화비

1866년 구한말 흥선대원군에 의해 가덕포구에 세워진 것을 현재의 성북동 천가초등학교내로 옮김

3 연대봉 봉수대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연대봉(해발 459m)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는 고려 의종 전후에 만든 것으로 추정



찾아오시는 길

- 시내버스(남포동 남포문고 앞 → 녹산 선착장 외항포 → 가덕도 등대
- 정기도선 1일 6회
- 녹산 선착장 선외기 이용 → 등대 선착장



부 산항 앞 바다에 가지런히 배열된 다섯 개의 바위섬! 부산항을 지키는 수호신인 오륙도이다. 오륙도는 부산만 북안 승두말로부터 남동방향으로 뻗어있는 기암절벽의 바위섬들을 말한다. 1972년 6월 26일 부산시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된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물이기도 하다. 오륙도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5개 또는 6개 섬으로 보여 오륙도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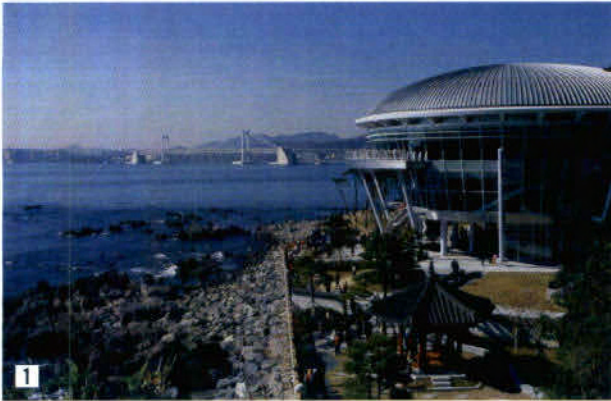
오륙도 발섬에 등대가 개설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7년 11월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고 나서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필요해 등대가 세워졌다.

이 등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 항구인 부산항을 드나드는 각종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륙도와 더불어 부산항의 상징으로 통한다. 오륙도 등대는 당초 6.2m 높이로 건립됐다. 그러나 등대가 너무 낮아 보수가 필요해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1998년 12월 웅장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등탑 높이를 27.5m로 높이고 등대 내부에는 우리나라 주요 등대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시실을 갖췄으며 부산항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올라서면 활기찬 부산항의 모습과 아름다운 야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 최초점등일 : 1937. 11. 1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1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27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FW10s)

- 특징 :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상징적인 섬으로 등대역사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처 : 오륙도 항로표지관리소 ☎ 017-564-2062
- 홈페이지 : http://www.pusan_momaf.go.kr(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누리마루 APEC하우스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부산시가 지난해 9월 15일 194억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에 착수해 1년 만에 준공했으며, 지상3층 연면적 905평 규모다. 누리마루 APEC는 특히 12개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는 한국 전통 정자를 본떠 한국의 전통미를 가미한 현대식으로 건축됐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뜻은 순수우리말인 누리(세상, 세계)와 마루(정상, 꼭대기), APEC 회의를 상징하는 APEC 하우스를 조합한 것으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APEC 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2 광안대교

국내 최대규모의 복층구조 현수교인 광안대교는 환상적인 야간 조명이 해수욕장의 야경과 어우러져 부산의 자랑거리이다.

3 광안리 테마거리

낭만의거리, 해맞이광장, 젊음의거리 등으로 불리우는 관광테마거리(1.2km)가 광안리해변을 따라 조성됨으로서, 초록향기 가득한 바다의 쉼터에서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바다 여행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TIP

오륙도의 명명을 살펴보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패섬은 세찬 비바람을 방패처럼 막아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솔섬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이름이며, 송곳섬은 송곳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그같은 이름이 붙여졌고 수리섬은 예전에 독수리가 갈매기를 포획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굴섬은 가장 큰 섬으로 큰 굴이 있어 천장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한 사람 몫의 음료수가 될만하다고 한다.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등대섬은 위가 평평해 발섬이라 불리다가 등대가 세워진 뒤부터 등대섬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시내버스(부산역) → 옹호동종점하차 → 마을버스 → 뉴시어선 → 등대선착장 또는 오륙도 방파제

1961년 이후 울산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산업의 대동맥인 석유화학제품들이 쏟아졌고, 울산항에는 이를 실어 나르는 배들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졌고, 울산항 관문에 위치한 꽃방마을 끝단에는 천년동안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기원하는 거북이 모양의 등대가 세워졌다.

이후 조선산업의 발달로 항만 축조 및 매립이 이루어져 바다쪽으로 등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낮아진 등고를 보완하고 울산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대 설치가 요구되었다. 마침내 1994년 12월 동양 최대 규모의 등대가 건립되어, 머나먼 여정을 헤쳐온 선박들을 안전하게 울산항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특히,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이곳 화암추등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전망대에 오르면 생동감 넘치는 울산항과 24시간 불빛을 내뿜는 산업단지의 역동성을 한 몸에 느낄 수 있으며, 등대 앞 방파제의 강태공들이 계절에 따라 색다른 손맛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최초점등일 : 1983. 1. 28.
-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62-2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44m)
- 등질 : 백홍호광 20초 1심광(AIFWR20s)
- 특징 :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등대이며, 등탑내에는 해양수산 홍보관과 울산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처 : 화암추항로표지관리소 ☎ 052-201-2602
- 홈페이지 : <http://ulsan.momaf.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15%를 생산하는 세계 제1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과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연간 148만 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춘 현대자동차를 견학할 수 있다.

2 울산공단 야경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든 무룡산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보석을 뿌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산업수도 울산의 역동성과 상징성을 느낄 수 있다.

3 고래박물관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건립된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으로 고래잡이가 금지된 1986년 이후 사라져가는 포경 유물과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Tip

방어진 서쪽 해안마을의 바다에 돌출된 검회색 바위 위에는 이상하리 만큼 하얗게 꽃문양을 연상시키는 무늬가 박혀 있다고 하여 "꽃바위(花岩)"라 불렀고, 주변 마을을 "꽃방마을"이라 불렀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바닷물이 만조를 이루었을 때, 출렁이는 물결에 드리워진 꽃무늬는 더할 나위 없이 절경을 이루었고, 저녁 무렵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 나가면서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천태만상의 바위형상들이 만물상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시인묵객들은 "화암만조(花岩晩潮)라 부르며 방어진 12경중 제1경으로 꼽기도 하였으나, 1989년 항만축조 및 매립사업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다.



찾아오시는 길

- 경부고속도로 → 울산고속도로 → 태화강변도로 → 아산로 → 방어진 → 방파제입구 → 화암추등대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울산역 → 명촌교 → 아산로 → 문현삼거리 → 방어진 → 방파제입구 → 화암추등대
- 울산공항 → 아산로 → 문현삼거리 → 방어진 → 방파제입구 → 화암추등대
- 좌식 · 시내버스(방어진행) → 남목 → 방어진 → 화암추등대



동북아 대륙에서 새해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해돋이 명소

동북아 대륙에서 새천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해안을 따라 느린 경사의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그림 같은 등대가 서 있다. 그 앞에 남태평양으로 향하는 배길이 환하게 열려 있고, 무거운 짐을 실은 거대한 화물선들은 울산항에 정박해 있다. 1920년 3월 처음 불을 밝힌 이래 80년을 하루같이 울산항을 드나드는 배들의 항로를 비추었던 간절곶등대는 국립 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2000년 1월 1일 오전 7시 31분 26초" 새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로 공포함에 따라 유명해진 등대이다.

조용한 이촌마을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등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들을 위하여 탁 트인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등대에 사용하였던 장비, 아름다운 등대사진, 등대의 역할을 설명하는 전시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등대 홍보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변에는 장승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등대와 키재기를 하고 있으며, '모녀상', '어부상', '거북이상' 등 석재 조각품과 '도충', '기둥', '돌과 하나의 논리' 등 철재 조각품들이 곳곳에 세워져 색다른 해양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20. 3. 26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8-1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17m)
- 등질 : 섬백광 15초 1심광(FW15s)
- 특징 :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이며, 해양수산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처 :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 052-239-6313
- 홈페이지 : <http://ulsan.momaf.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진해해수욕장

모래가 곱고 흰데다가 물빛까지 파랗게 맑은 동해남부 최고의 해수욕장. 썰물 때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명선도와 모세의 기적처럼 연결되며, 윈드서핑, 바나나보트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2 외고산 옹기마을

세계적으로 유일한 옹기 생산국가인 우리나라의 옹기제품 50% 이상을 생산하며, 옹기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옹기 체험실습장 ☎ 052-238-9889)

3 작괘천

수백평이나 되는 바위가 오랜 세월 물살에 깎여 움푹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걸어둔 것과 같다고 하여 작괘천이라 하며, 입구에는 빗꽃터널이 장관을 이루고, 상류에는 세계 최고 품질의 지수정을 생산하는 동굴나라가 있다.

4 신불산 역사평원

광활한 면적의 역사평원은 재약산 사자평과 함께 영남알프스의 대표적인 역사 군락지로서 만추의 계절에는 장관을 연출한다.

TIP

간절곶이라는 명칭을 통해 먼 바다를 향해하는 어부들이 동북이나 서남에서 이 곳을 바라보면 긴 간절대(긴 대로 만든 장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 한자로는 '艮絶'이라 표기한다.
'곶(串)'이란 육지가 바다쪽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신라 때부터 '고채(古次)' 또는 '곶'이라 써왔고, 조선시대 용비어천가에 '등산곶', '잣곶' 등이 기록돼 있다. 간절곶을 조선 초기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갈곶(爾吉串)이라 하였는데, 이(爾)가 가지고 있는 뜻은 '넓다'이며, 갈(吉)은 「길다」라는 말의 차음(借音)이니, 간절대처럼 길게 나온 곳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특히 낭끝바위는 간절곶에서도 가장 돌출 지역으로 이곳에서 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다하여 새해 첫날 해돋이 광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 찾아오는 길

- 좌석버스 : 삼산 → 공업탑 → 간절곶
- 시외버스(부산·해운대행) : 공업탑 → 진해해수욕장 → 간절곶
- 경부고속도로 → 울산고속도로 → 남부순환도로 → 진해해수욕장 → 간절곶
- 울산공항 → 울산역 → 여천공단입구 → 청량면 덕하 → 진해해수욕장 → 간절곶



문무대왕비의 슬국영령이 코발트빛 동해바다를 지키는 곳



태 백산맥이 마지막 뻗어내려 그 끝머리가 깊숙이 방어진 반도에 꼬리를 감춘 곳,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해안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제2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울산의 끝 ‘울기(蔚崎)’에 등대가 건립된 것은 1906년 3월 높이 6m의 백8각형 등탑이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목장이었던 이곳에 러·일전쟁 이후 해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인공적으로 1만 5천 그루의 해송림이 조성되었다. 그 후 등대 주변의 해송들이 자라 하늘을 감싸 안아 등대불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87년 12월 기존 위치에서 50m를 옮겨 촛대모양의 아름다운 등대를 새로 건립하여, 동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왕암공원 내에 등대가 위치하여, 등대로 가는 600m의 길옆에는 타래붓꽃, 수선화, 해당화, 해국 등 각종 야생화가 찾는 이를 반기며, 매년 4월이면 왕벚나무 터널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룬다. 등대를 지나 계단을 내려서면 문무대왕의 호국영령이 서려 불그스름한 기운을 띤 대왕암이 청자빛 하늘과 코발트빛 바다를 그은 수평선 위로 살짝 돌아나면서 절경을 자아낸다.

- 최초점등일 : 1906. 3. 24.
-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5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 (24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FW10s)
- 특징 : 우리나라 동해안 최초의 등대로서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울기공원내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대와 바다를 소재로 글쭙쓰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대이다.
- 연락처 : 울기항로표지관리소 ☎ 052-251-2125
- 홈페이지 : <http://ulsan.momaf.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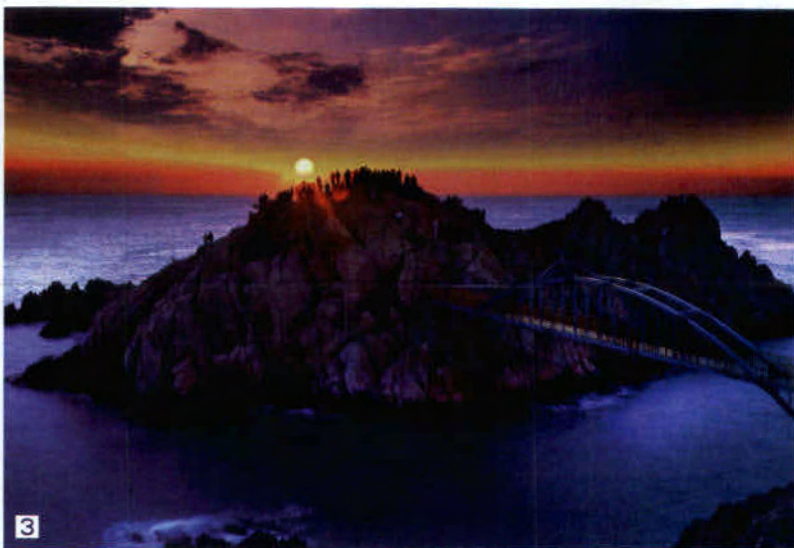




1



2



3

1 일산해수욕장

질 좋은 모래와 적당한 수온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어 가족단위의 물놀이에 적합하며, 주변 대왕암공원의 솔잎향을 맡으며 산책도 할 수 있다.

2 주전해안 몽돌해수욕장

동해안의 청정해역과 더불어 보석처럼 아름다운 까만 밤자갈 받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수평선에 걸린 오징어잡이 어선의 하얀 불빛과 이국적 정취의 레스토랑 조명 빛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 곳으로 유명하여 연인들이 즐겨 찾는다.

3 대왕암공원

술술이 내뿜는 피톤치드가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산림욕장으로 유명하며, 오랜 세월 바닷물에 씻기고 깎여 빚어진 탕건바위, 할미바위, 삼신바위, 남근바위, 낙하바위 등 기암괴석이 대왕암과 잘 어우러져 있다.

TIP

“나는 죽은 뒤 큰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리라”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던 신라 30대 문무대왕, 서기 681년 그는 숨을 거두면서 이 같은 유언을 남겼다. 그의 유언에 따라 확장한 유골을 동해 앞바다에 안장하여 그곳이 경주 감포 앞바다의 대왕암. 아내 문무대왕비도 남편과 같이 호국대룡이 되기를 바랬고, 죽어 용이 된 뒤 울산 앞바다로 내려왔다. 용이 떨어졌던 바위를 땡바위(대왕바위)라 불렀고, 바위 뒷산을 땡바위산이라 불렀다. 이후에 등대가 생기자 등대산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공원을 조성하고 바위의 이름을 따서 대왕암공원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등대 동쪽에 김숙이 뚫린 자연동굴이 바위벼랑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데, 물결이 동굴 김숙이 들어갔다 빠져나올 때는 그 르르! 하고 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하여 용굴이라 불렀고, 파도가 사나울 때는 굴속이 쿵쿵 울릴 만큼 소리가 심하여 여름철에도 오싹함을 느낀다.



찾아오시는 길

- 좌석·시내버스(방어진행) :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 남목 → 울기등대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울산역 → 명춘교 → 아산로 → 문현삼거리 → 방어진 → 울기등대
- 울산공항 → 아산로 → 문현삼거리 → 방어진 → 울기등대



SBS 드라마 「폭풍속으로」 촬영지

호 미곳을 제외하고 동해안에서 바다로 가장 많이 뻗어 있는 곳이 죽변곶이다. 파도 소리와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곳에 죽변 등대가 우뚝 솟아있다. 죽변은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고 붙여진 지명이다. 특히 이 곳에 자생하는 小竹은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보호하였다고 전한다.

이 등대는 1910년 11월 24일 건립되었으며, 구내에는 1911년 일본국 수로부에서 설치한 수로측량 원표가 남아있다. 죽변은 우리나라 동해안 항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울릉도와는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이다. 등탑의 높이는 16m로 백색의 8각형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으며, 불빛은 20초에 한번 반짝이며 약 37km까지 불빛이 전달된다. 등탑은 2005년 9월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등탑내부 천정에는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원래는 대한제국황실의 상징인 오얏꽃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한다. 등대 주변풍광 또한 무척이나 아름다워 2004년에는 이곳을 배경으로 SBS에서 '폭풍 속으로'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 최초점등일 : 1910. 11. 24.
- 위치 :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산1번지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16m)
- 등질 : 섬백광 20초 1섬광(FW 20s)
- 특징 : 죽변만은 국토의 중간지점으로 용의 꼬리 형상의 용추곶에 등대가 위치하여 연안표지를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죽변항로표지관리소 ☎054-783-7104
- 홈페이지 : <http://pohang.moma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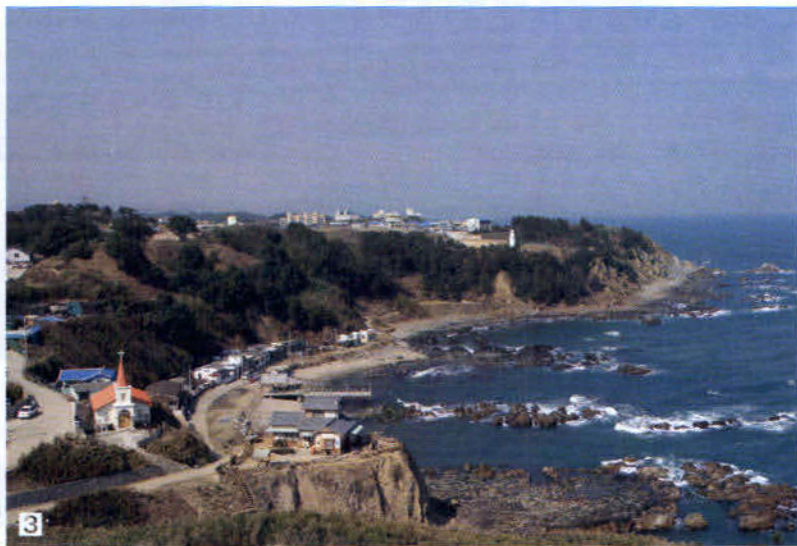




1



2



3

1 봉평해수욕장

소나무와 해당화 모래밭,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이 해수욕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덕구온천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으로 약 알칼리성 온천이다.

3 '폭풍속으로' 드라마 세트장

백백이 자생하는 소죽 언덕에서 노송 사이로 밀려오는 하얀파도, 갈매기, 하얀등대를 바라보면서 죽변등대와 "SBS 폭풍속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해보라, 그러면 바로 당산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TIP

죽변등대가 위치한 곳은 용의 꼬리라 하여 용추곶이라 부르기도 하며 지역주민들은 용태이라 부르며, 죽변등대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까지는 암초가 깔려 있고 임초의 중간부분에 용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던 곳이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곳에서 기우재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경북포항 → 7번국도(강원 동해 방면) → 울진군 죽변면(3시간 소요)
- 강원동해 → 7번국도(경북 포항 방면) → 울진군 죽변면(1시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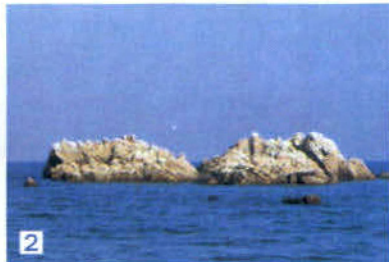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죽어서도 龍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문무왕의 수중릉인 대왕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관이 수려한 감포항이 있다. 항구 북단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동해 망망대해를 지키는 송대말(松臺末)등대가 자리잡고 있다. 송대말에는 수령 300년~400년 정도의 소나무숲이 무성하다. 감포항 인근 해역에는 암초들이 길게 뻗어 있어 작은 선박들의 해난사고가 빈번하자 암초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1933년 2월 감포어업협동조합에서 등간(燈竿)을 설치하였다. 그러다 감포항 이용 선박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감포항 북쪽 송대말(松臺末)에 1955년 6월 30일 무인등대를 설치했다. 그후 육지표시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4년 12월 20일 기존 등탑에 대형 등명기를 설치해 광력을 증강하고 유인등대로 전환했다.

원래 등탑은 백색의 원형이었으나 지난 2001년 12월 등대를 종합정비하면서 신라시대를 대표하면서 문무왕의 은혜를 기리는 의미를 지닌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건립하였다.

또한 전시실을 마련하고 등대 및 바다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해 두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 최초점등일: 1955. 6. 30.
- 위치:경북경주시감포읍오류리 588-3
- 구조:백4각형 콘크리트조(21m)
- 등질:홍색호광 84초 1심광(AIRWR 84s)
- 특징:백색과 홍색의 호광등으로 인근해역의 수심이 얇은 구역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된 등대로 신라시대 건축양식('01.12. 24)을 도입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등대시설로 개량하였다.
- 연락처: 송대말항로표지관리소 ☎ 054-744-3233
- 홈페이지: <http://pohang.moma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감은사지3층석탑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3층 석탑으로 682년(신문왕 2) 감은사 창건 무렵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시대석탑의 시원적 형태이다. 국보 제112호이다.

2 문무대왕수중릉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이 용이 되어 왜구를 막겠다고 한 유언을 따라 그의 유해를 안치한 곳으로 대왕암이라 널리 알려진 곳이다. 사적 제158호이다.

3 감포항

고기잡이배가 들어오는 아침10시가 되면 좌편에 각종 생선과 해물을 파는 채래시장을 형성하며 값싸고 싱싱한 횡감을 맛볼 수 있다.

TIP

연인들의 은밀한 공간으로 제격인 송대말 등대는 감포항이 한눈에 들어오며 달빛서린 밤바다는 온몸이 저리도록 강한 성정을 내뿜는다. 신라문무대왕의 혼이 깃든 신비로운 대왕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봉길해수욕장이 송대말등대에서 10km 거리에 있다.



찾아오시는 길

• 경주에서 4번국도(30분) → 감포항 → 도보(20분)



한반도 최동단 놀랑이 꼬리, 최고의 명당으로 알려져

한 반도 최동단에 위치해 일출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호미곶(虎尾串)'이다. 16세기 조선 명종때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는 한반도의 모양새가 호랑이 앞발로 연해주를 활퀴는 형상이라며 백두산은 호랑이 코,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면서 이곳을 천하 명당으로 꼽았다.

광무5년(1901)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륙진출의 기반을 다질 즈음인 1901년 9월 9일 일본수산실업전문대학 실습선(快應丸)이 대보 앞바다를 항해하다가 암초에 좌초되어 승선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등대시설 공사를 하게 됐으며 1908년 12월 호미곶 등대가 건립됐다. 이 등대는 8각 연와조로 철근없이 벽돌로만 지어졌으며 내부는 6층이며 등탑 높이는 26.4m이다. 등탑 내 각층 천정에는 대한제국 황실 문양인 '오얏꽃'이 새겨져 있고 출입문과 창문은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의 박공양식으로 장식돼 있다. 또 상부는 돛형 지붕 형태에 8각형 평면이 반치고 있으며 하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 등대의 불빛은 35km까지 전달된다. 1982년 경상북도 지방기념물(제39호)로 지정되었다.

- 최초점등일 : 1908. 12. 20.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
- 구조 : 백8각형 연와조(26.4m)
- 등질 : 삼백광 12초 1섬광(FW 12s)
- 특징 : 우리나라 지도의 형상인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영일만 입구에 위치한 붉은 벽돌로 건축된 등대로 경북지방문화재 제39호('82. 8)로 지정되어 있다. 바로 옆에 등대박물관이 위치한다.
- 연락처 : 호미곶항로표지관리소 ☎ 054-284-9814
- 홈페이지 : <http://pohang.moma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조왕실 상징인 오얏꽃 문양



TIP

고산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호미곶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으로 확인하고 호랑이 꼬리부분이라고 기록하였다. 육당 최남선은 백두산호랑이가 연해주를 할취고 있는 형상으로 한반도를 묘사하면서 이곳을 '호랑이꼬리'라고 이름하였고 영일만의 일출을 조선십경(朝鮮十景)중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매년 해맞이 축전행사가 열린다.



1 해맞이광장

새천년의 희망찬 출발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담은 이곳에는 상생의 손, 영원의 불, 연오랑 세오녀상 등의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2 영원의 불

1999. 12. 31. 서해 변산반도의 일몰과 2000. 1. 1 호미곶일출에서 불씨를 채화한 '새천년 영원의 불' 그리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성화로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채화한 '통일의 불'을 합화한 것이다.

3 상생의 손

1999.12월 청동 조형물로 육지에는 왼손(높이5.5m) 바다에는 오른손(높이8.5m)이, 새천년을 맞아 서로 도우며 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바다 위로 불쑥 솟아나온 '상생의 손' 위로 떠오르는 아침해는 벅찬 감동을 준다.



찾아오시는 길

- 포항C → 구룡포 → 호미곶
- 포항시외버스터미널(시내버스200번이용 50분) → 구룡포역차 → 대보행 순환버스 이용(30분)



바다 한복판에 두 기둥이 우뚝 서서 위풍 당당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웅장한 모습의 독도! 거기에 우리의 바다를 비추는 독도등대가 서있다. 독도는 망망대해 위에 깎아지른 바위 봉우리로 규모는 작지만 거제의 해금강이나 여수 백도 못지않게 독도의 풍광은 웅장하여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으며, 코끼리를 닮은 독립문바위와 주변에 크고 작은 암봉, 가재바위와 탕건봉 등은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기암 전시장처럼 보인다. 동도와 서도 두섬 사이 수면 아래로는 자갈과 모래가 환하게 들어올 정도로 너무 맑다. 바다와 하늘과 조화를 이룬 독도의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 섬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년 앞선다. 독도등대는 독도 주변해역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1954년 8월에 무인 등대로 최초 설치되었으며, 1998년 12월 광력을 증강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유인등대 화하였다. 현재의 독도등대는 백색원형콘크리트 구조로(높이15m) 백색 불빛이 10초에 한번 깜박이며, 46km의 먼곳까지 불빛을 전한다.

- 최초점등일 : 1954. 8. 10.
- 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5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FW 10s)
- 특징 : 우리나라 최 동단의 화산바위섬에 세워진 등대이며 등대원이 상주근무하여 국토지킴이 역할과 선박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 연락처 : 독도항로표지관리소 ☎054-791-1161
- 홈페이지 : <http://pohang.moma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



TIP

- 독도입도는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한정 (1일 입도가능인원 선착순접수)
- 독도관광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
- 여객선 운항(3월~11월)
 평시 매일 오전 7시40분과 오후 2시30분 2회운항
 독도관광시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상이나 계절에 따라 운항시간이 자주 바뀌므로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1 독도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으며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2005년)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쥐멍이주, 번행초 등 유관식물과 바다제비, 습새, 팽이갈매기 등 조류의 집단서식지로서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질상의 특수성과 학술적·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섬으로 총면적은 180,902㎡(54,723 평)에 달한다.

2 독도등대

독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다.

3 독도해상을 순찰중인 해경정

해양경찰청은 독도 주변 해상에 경비정을 수시로 파견해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찾아오시는 길

- 포항여객선터미널(평시 10:00출항 3시간)
 → 울릉여객선터미널(삼봉호 선박이용 약 3시간)

東으로 독도를 北으로 저동항을 사이에 두고 살구꽃 활짝 필

도 동과 저동 사이의 해안을 끼고 있는 촌락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도 살구꽃을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을 어귀에 큰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하여 행남(杏南)으로 전래되고 있으며, 지형이 뱀의 입처럼 되었다고 하여 살구남(口南)이라고도 한다. 청명한 날에는 등탑에서 정동쪽으로 독도를 볼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저동항의 아름다운 모습과 촛대바위를 눈 아래로 볼 수가 있고, 울릉도의 상징인 성인봉의 정상도 볼 수 있다.

도동등대는 울릉도의 동쪽 끝 행남말(杏南末) 끝단(등고 108m)에 위치하며, 1954년 12월 무인등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독도 근해 조업 선박이 증가됨에 따라 연안표지시설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의 위치에 광력을 증강하여 1979년 6월 유인등대화 하였으며, 신비의 섬 울릉도 배길의 길잡이로서 도동등대 새단장이 2006년말 마무리되면 소규모 공원과 전시실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인근에는 도동약수터가 있는데 이곳의 물은 독특한 청량 음료의 맛으로 소화를 도와주고 신경통과 피부병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등대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저동항은 국가어항으로 울릉도의 유일한 어업전진기지로서 새벽에는 울릉도 근해에서 밤새 낚은 오징어의 참맛을 볼 수 있으며 수평선 너머 떠오르는 일출광경을 볼 수 있어 좋다.

- 최초점등일 : 1979. 6. 23.
- 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4-1번지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9.1m)
- 등질 : 섬백광 14초 1섬광(FW 14s)
- 특징 : 우리나라 국토 동쪽 끝 울릉도 동단 행남말에 위치하며 울릉도와 독도근해 조업 및 운항선박의 육지초인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명한 날 등대에서 정동쪽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
- 연락처 : 도동항로표지관리소 ☎054-791-2594
- 홈페이지 : <http://pohang.momaf.go.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1 울릉도 향나무

우리나라 최고령 향나무 수령 약 2,500년으로 높이 4m, 경상북도 지정보호수로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무렵 척박한 암벽에 뿌리를 내리고 오가는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울릉도의 상징나무다.



2



3

2 독도박물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삼성재단이 건축한 건물에 이종학 초대관장이 수집한 자료와, 독도의용수비대(대장故 홍순철) 동지회와 푸른독도 가꾸기모임 등의 자료 기증이 이루어져 1997년 8월 8일 국내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3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전망대에서는 울릉팔경의 하나인 오징어잡이배 어화(漁火)를 감상하며 날씨가 맑은 날은 독도를 볼 수 있다.



Tip

도동등대에서는 북쪽으로는 저동항의 아름다운 모습과 촛대바위가 한눈에 조망되며, 울릉도의 상징인 성인봉의 정상도 볼 수가 있다. 울릉8경 중 도동모범(道洞慕帆: 도동항 석양 무렵 오징어배 출어 모습), 저동어화(亭洞漁火: 저동 야간 오징어잡이 불빛)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울릉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 찾아오는 길

- 포항어객선터미널 → 선플라워호(1일1회 왕복, 3시간 소요)
- 묵호어객선터미널 → 카타마란호(1일1회 왕복, 2시간 30분 소요)
- 울릉도(도동) → 해안도로(도보 30분 소요)



울릉도는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신라의 이사부가 독립국인 우산국을 점령한 뒤 우릉도(羽陵島)·무릉도(武陵島) 등으로 불리다가 19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섬 전체가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종상화산(鐘狀火山)이다. 섬의 중앙부에는 최고봉인 성인봉(984m)이 있고, 그 북쪽 비탈면에는 칼데라 화구가 무너져 내려 생긴 나리분지가 있으며, 평지는 거의 없고 해안은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각형 모양으로 면적은 72.56km이다. 울릉도 동쪽 끝 대풍감 끝자락에 태하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태하의 김(해태)이 많아서 불리었다는 설과 안개가 자욱하다고 불리었다는 설이 있다. 울릉도등대는 1958년 최초로 점등 되어 울릉도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등탑은 백색 원형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7.6m이며, 2003년 10월 국내기술로 개발한 프리즘렌즈 회전식 대형등명기로 교체하여 50km까지 불빛이 나아간다. 울릉도등대에 오르는 등산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오솔길과 푸른 숲으로 되어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기암절벽과 풍광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의 등산 코스로 많이 사랑받고 있다.

- 최초점등일 : 1958. 4. 11.
- 위치 :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3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7.6m)
- 등질 : 섬백광 25초 1섬광(F W 25s)
- 특징 : 우리나라 동쪽 끝 울릉도 서단의 항나무 군락지인 대풍감에 위치하며 대화퇴어장과 육지에서 울릉도로 운항하는 선박의 육지초인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울릉도항로표지관리소 ☎ 054-791-5334
- 홈페이지 : <http://pohang.momaf.go.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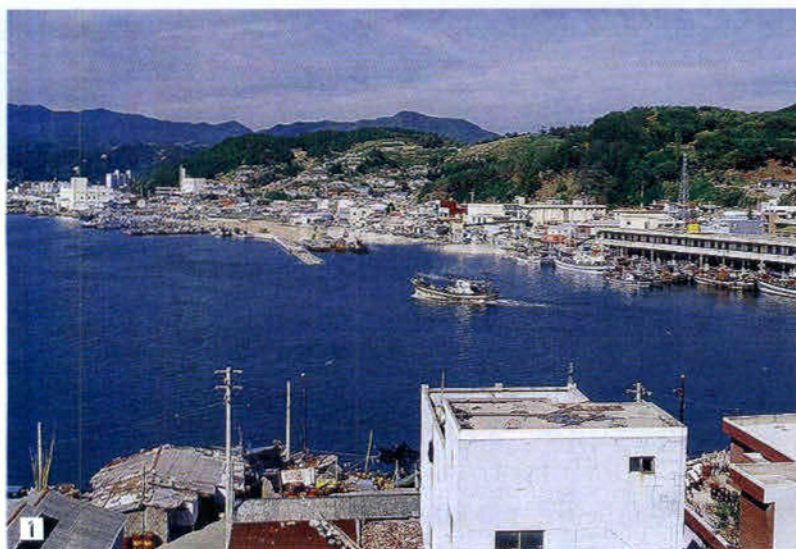


동해의 푸른바다와 산야를 끼고 아름다운 해변의 풍광을 자랑하는 후포항은 울진군 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 항구로서 동해안 항로중간에 위치하여 동해중부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어업전진기지이다. 후포항 끝자락에서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가면 해발 64m의 풍광이 아름다운 등기산 꼭대기에 올라 등대로 들어서면 입구에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후포항로표지관리소”라 쓰여진 입간판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이 바로 후포 등대이다.

등대가 위치한 등기산은 옛날부터 부근을 지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흰 깃발을 꽂아 위치를 알리고 야간에는 봉화 불을 피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후포등대는 1968년 1월 최초점등을 하였으며, 불빛은 35Km에 이르러 후포앞바다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후포항과 동해바다를 관망하는 전망대 역할도 한다.

후포항 방파제는 동해에서 이름난 낚시터로써 사철 낚시꾼들이 물러 들어 감생어, 흑도미, 학꽂치 등을 잡을 수 있으며, 후포등대 정상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전망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다.

- 최초점등일 : 1968. 1. 24.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41-9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11m)
- 등질 : 삼백광 10초 1섬광(FW 10s)
- 특징 : 옛날부터 깃발과 봉화로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던 등기산(燈基山)에 등대가 위치하며 울릉도와 제일 가까운 등대로서 연안표지역할을 한다.
- 연락처 : 후포항로표지관리소 ☎ 054-788-2307
- 홈페이지 : <http://pohang.momaf.go.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후포항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촬영지였던 후포항에는 울진대게 등 싱싱한 해산물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2 월송정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은 고려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시대 성종이 주변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3 백암온천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으로 약 알칼리성 온천이다. 신라 때부터 알려진 유서깊은 온천으로 1979년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유황질 온천으로 각종질병에 효과가 있다.

TIP

후포항에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어선들이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대게잡이를 나선다. 어획량만 비교하면 울진군이 영덕군보다 많다. 이는 후포항에서 25km 떨어진 왕돌초에서 대게잡이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찾아오시는 길

- 포항에서 7번국도(강원 동해 방면) → 울진군 후포면(2시간 소요)



대전등대는 등탑이 팔각형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불빛은 12초 간격으로 깜빡이며, 약 37km 떨어진 해상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등탑 위 전망대에 올라서면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으며 환상적인 일출과 석양을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시야가 좋은 날에는 멀리 해금강은 물론이고 북한지역까지 바라볼 수 있다.

대전등대는 설치당시 1개의 유인등대와 또 다른 보조등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대전등대가 설치된 목적이 어로한계선을 표시하는 도등(2개의 등대를 연결하는 선이 어로한계선)의 역할을 하기위해 1973년 1월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어로한계선을 북쪽으로 5.5km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도등의 역할을 마치고 1993년 4월 1일 일반등대로 전환되었다.

대전등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동해안 최북단의 무인등대인 저진도등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저진도등은 2개의 등대를 연결한 선이 어로한계선임을 표시하면서 어선들이 월북하여 조업하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저진도등의 전도등은 35m, 후도등은 20m의 높이로서 홍백 사각의 콘크리트조 등대이다.

- 최초점등일 : 1973. 1. 20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6-4
- 구조 : 백8각형 콘크리트조(31m)
- 등질 : 백섬광 12초 1섬광(FW12s)
- 특징 : 우리나라 최북단에 통일전망대와 금강산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등대로 인근의 저진 도등과 거진등대를 무선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 연락처 : 대전항로표지관리소 ☎033-682-0172
- 홈페이지 : <http://donghae.momaf.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3



2



TIP

대진은 고려시대에 여산현(驪山縣), 그후에는 열산현(烈山縣)에 속해 황금리(皇琴里 황구리)라고 불려왔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한나루(大津里)라 개칭하였다. 그 후 1920년에는 고성군 현내면 소재리로 승격하였으며, 한나루(포구)에 항을 쌓아 조그마한 어항으로 축조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행정권이 수복되어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피난민이 일시에 많이 몰려, 대진리 일원만 9,000여명으로 늘어 대진 1,2,3리로 분할 관할하였고, 1973년에는 행정 구역 조정상 2개리를 늘려 대진 4,5리로 분할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통일전망대

DMZ와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 고지의 통일전망대에 서면, 금강산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고, 맑은 날에는 신선대, 옥녀봉, 집선봉 등 천하절경 금강산 등을 볼 수 있다.

2 대진해수욕장

해안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350m의 백사장에는 희고 고운 모래가 깔려있고, 물빛이 깨끗하고 수심이 얕다.

3 건봉사

건봉사는 금강산이 시작되는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 양양의 낙산사를 거느렸던 대사찰이었다. 불이문, 돌솥대, 능좌교, 적멸보궁, 냉천약수 등이 유명하다.



찾아오시는 길

- 속초시내 1번 버스이용 대진시내 하차 → 대진등대
- 속초 → 7번국도상행선 → 거진 → 대진(대진항방향) → 대진등대



속 초에 등대가 세워진 것은 6.25 전란 후 휴전선을 바로 앞에 둔 속초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항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선박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부터이다. 속초등대는 1956년 12월에 착공하여 1957년 6월 8일부터 등대불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며, 등탑은 높이가 10m로서 등대가 위치한 절벽높이 38m까지 합쳐 해발높이는 48m에 달했다. 등대불빛은 45초에 4번 반짝이며 그 빛은 36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속초등대의 등명기는 1953년 일본에서 제작, 1957년 등대설립 당시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이 렌즈의 직경은 무려 1m에 달한다. 특히 이 등명기는 추의 무게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추 무게가 최대 230kg까지 활용되며 시계추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추가 한번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 정도이다.

속초등대 전망대에서는 속초항방파제등대를 비롯하여 조도북방등부표, 조도등대, 속초항등표 및 조도남서방등표 등 여러 종류의 항로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2006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신축되는 등대는 높이 28m의 구조물로서 등고가 66m에 달한다. 또한, 해양수산홍보관, 등대테마공원 및 바다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해양관광 명소로 새롭게 태어난다.

- **최초점등일** : 1957. 6. 8.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7
- **구 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28m)
- **등 질** : 백섬광 45초 4섬광(F(4)W45s)
- **특 징**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3등급 수은증추식 회전 등명기를 설치하여 동해안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설악산과 동해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 **연락처**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033-633-3406
- **홈페이지** : <http://donghae.momaf.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엑스포공원

"99 강원 국제관광엑스포"를 상징하는 73.4m의 전망대와 아이맥스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주제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소가 누워있는 모양의 청초호가 넓게 펼쳐져 있다.

2 설악산국립공원

398,539km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다.

3 갯배

속초시내와 청호동 아바이 마을 사이의 수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이배는 긴 선으로 양쪽을 연결해 놓고 줄을 잡아당기면서 양방향으로 오고 간다. 갯배는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며, 속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TIP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영조36년(1760년)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 라는 한 동리였으며, '뭍을 속(束) 자, '풀 초(草) 자 라고 쓴다. 이는 영금정(靈琴亭)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靈琴亭)옆에 솔산이 있는데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어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 지리적으로 속초(束草) 지형이 외우(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으로서, 소가 누워서 머리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하며, 또 '한국지명총람'에는 속새울, 속새골이라고도 불렀으며 속새가 많아 그리 불렀다는 기록도 있는데 속새를 한자로 표기하니 속초라는 것이다.



찾아오시는 길

- 속초고속버스터미널 → 영금정입구 하차 → 속초등대
- 속초시외버스터미널 → 속초항방향 도보 → 속초등대
- 영동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현남IC 하차 → 속초방향 → 속초등대
- 강릉 → 7번국도 상행선 → 주문진 → 속초 → 속초항 → 속초등대

주문진항은 항내 수 면적이 21만㎡ 크기인 연안항으로 예전엔 오징어·명태·꽁치·무연탄·경유 등이 주로 반입되고, 규사가 주로 반출되는 등 동해안 유수의 어업전진기지로 호황을 누렸었다. 이곳에 여객·화물선이 처음 입항한 것은 1917년으로 부산~원산간을 운항하는 기선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부터이다.

강원도 중부지역은 특별히 발달된 항구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등대가 늦게 설치된 편인데 주문진등대는 1918년 3월 20일(조선총독부고시 61호) 강원도에서는 첫번째로 세워졌다.

백원형연와조로 건조된 이 등대의 등탑은 최대 직경3m, 높이 10m로 외벽엔 백색의 석회 몰타르가 칠해져 있다. 이러한 벽돌식구조의 등대는 우리나라 등대건축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등대불빛은 15초에 한번씩 반짝이며 37km 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주문진등대는 한국전쟁때 파손됐다가 1951년 복구되었다.

- 최초점등일 : 1918. 3. 20.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87-2
- 구조 : 백원형연와조(10m)
- 등질 : 백색광 15초 1섬광(FW/15s)
- 특징 :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며, 동해안 연안에서 최초로 무선포지국을 운영하였던 등대이다.
- 연락처 : 주문진항로관리소 ☎ 033-662-2131
- 홈페이지 : <http://donghaemomafi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



TIP

주문진은 태백산맥 줄기가 동쪽으로 내려와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주문진이란 지명은 1937년 이곳에 나루가 있다 해서 붙여진 것으로 고구려때엔 지산현(支山縣)이었으며, 일명 양곡(陽谷)이라고도 하였고,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년)에 이르러 支山이라 하였으며, 명주(溟州)의 嶺巖으로 하였고, 고려8대 현종9년(1018년) 지방관제의 개정에 의해 連谷縣에 소속된 마을이었다. 또 조선 영조33년(1757년)엔 신리면(新里面)으로 각각 명명됐었다. 이 같은 신리면이 대한제국까지 유지되었으며, 1913년 부제(府制)가 공포되어 강릉대도호부는 강릉부가 되었고 지금의 주문진인 신리면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37년 4월 1일 신리라는 명칭이 이곳에 나루가 있다하여 주문진으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 하조대

양양8경의 한곳인 하조대는 천지개벽이 일궈 놓은 동해 해변의 기암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 기이한 풍광을 이룬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이 곳에서 말년을 보내며 청유(淸遊)하였던 데서 두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는 명칭을 붙였다 한다.

2 경포호

바다와 이어지는 넓이 38만평의 자연호수로, 바다와 맞닿은 도로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 새도래지 (고니, 청둥오리, 학, 물오리)로 유명하다.

3 향호호수

고려 충신왕 때 동해안의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향나무를 묻고 미륵보살이 다시 태어날 때 이 침향(沈香)으로 공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향(埋香)의 전설이 깃든 곳 중의 하나이다.

4 소돌아들바위

일억오천만년전 쥐라기 시대에 물으로 솟은 바위로 자식없는 부부들이 기도를 하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전설이 있어 신혼부부가 즐겨 찾는 곳이다.



찾아오시는 길

- 강릉버스터미널 → 주문진버스터미널 하차 → 주문진항방향 도보 → 주문진등대
- 강릉시내 버스이용 주문진수협사거리 하차 → 도보 → 주문진등대
- 강릉역에서 버스이용 주문진수협사거리 하차 → 도보 → 주문진등대
- 영동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현남IC 하차 → 주문진항방향 → 주문진등대
- 강릉 → 7번국도 상행선 → 천 → 연곡 → 주문진 → 주문진항 → 주문진등대



목호항은 1941년 8월 11일 개항(開港)되어 무연탄 중심의 무역항의 역할과 함께 어항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목호등대는 1963년 6월 8일 건립 되어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기여하게 되었다.

해발고도 67m에 자리 잡은 목호등대는 백원형 철근콘크리트조이고, 높이는 12m의 내부 2층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봄이면 개나리가 화사하게 피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작은 해양수산물보관은 해양수산 변천사를 알려주고 있으며, 소공원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특히, 목호등대 소공원에는 1968년 정소영 감독 作 영화「미워도 다시 한번」의 주요촬영지임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 5월 「영화의 고향」기념비가 세워졌다.

목호등대는 목호지역 해변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바다에서 등대 식별이 용이토록 되어 있으며, 2003년 10월 설치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프리즘렌즈 회전식 대형등명기의 불빛은 42km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 최초점등일 : 1963. 6. 8.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목호진동 산2-215번지
- 구조 : 백원형 콘크리트조(12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FW10s)
- 특징 : 강원도 동해안 최대 항만인 목호항 동문산에 등대가 위치하며 연안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락처 : 목호항로표지관리소 ☎033-531-3255
- 홈페이지 : <http://donghae.momaf.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1 망상해수욕장

동해 제1의 해수욕장, 2km에 달하는 드넓은 백사장과 얇은 수심, 청정 해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숙박 및 편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국내 최초 자동차전용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어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백사장, 맑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레저공간이다.

2 무릉계곡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무릉계곡은 호암소로부터 시작하여 약 4km 상류 용추폭포가 있는 곳까지를 말한다. 삼화사, 학소대, 옥류동, 선녀탕, 쌍폭포, 용추폭포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다.

3 추암촛대바위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바위를 보호라도 하듯 크고 작은 기암들이 둘러싸여 있고 뒤편에 자리한 해안정과 어우러진 절경이 독특하다. 애국가 첫 소설 배경 장면으로 나와 유명한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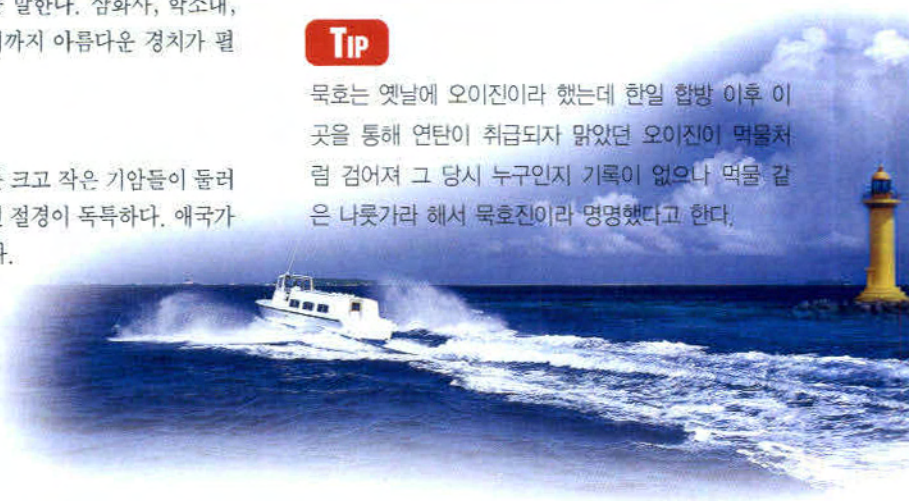
2



3

TIP

목호는 옛날에 오이진이라 했는데 한일 합방 이후 이곳을 통해 연탄이 취급되자 앞았던 오이진이 먹물처럼 검어져 그 당시 누구인지 기록이 없으나 먹물 같은 나룻가라 해서 목호진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 찾아오시는 길

- 동해시외 · 고속버스터미널 → 목호등대 하차
- 영동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망성IC(하차(목호항방향)) → 목호등대





▶ 국립등대박물관 전경

항로표지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근대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시대적 변천으로 항로표지시설과 관련용품들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를 역사적 유물로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고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의 중요성과 바다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호미곶등대(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39호)가 있는 호미곶에 1985년 2월 7일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박물관을 개관하였다.

1985년 개관한 제1전시관(해양수산물)은 푸른 바다와 푸른 숲, 하얀 등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였고 이후 유물전시를 통한 문화체험 확대와 학습장소 및 항로표지 역사보존과 발전연구 공간마련을 위하여 1996년도부터 제2전시관(등대관) 건립 및 전시물 보원을 위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 4월 19일 재 개관하였다. 또한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이고자 2003년 3월 14일 기획전시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항로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항로표지 전문기관인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에는 바다와 등대를 향한 시인들의 자유로운 마음을 노래한 시화전과 시낭송회 개최 및 관람객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박물관장의 전시설명프로그램과 주말무료영화상영 등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문화 불모지인 호미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등대100주년 공모 입상작 중 어린이들의 작품만을 선정하여 “동심의 눈으로 본 등대불” (2005.8.24~10.16)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열었으며 하반기에는 관람객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

한 정기적인 전시설명 정착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관람객 참여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시관 소개]

국립등대박물관은 항로표지유물 및 해양수산 관련자료 320종 4,265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585점을 항로표지의 역할과 기능, 역사, 생활 등으로 분류 전시하고 있다. 1985년 개관한 해양수산물관(제1전시관)을 비롯하여 등대관(제2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상전시관, 야외전시관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테마공원과 전망대 휴게실 등이 있다.



▶특별전 포스터

[등대관]



▶등대관 전경

2002년에 개관한 등대관은 망망한 대해에서 등대를 찾아가는 선박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우리나라 근대식 등대 건립 이후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와 유물의 다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6개의 주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등대박물관이 위치한 포항의 옛 모습과 항로표지현황, 세계의 주요항로 등을 알 수 있는 도입부와 60~70년대 등대원의 숙소, 사무실을 재현하고 등대원이 직접 사용하였던 유물들을 전시하여 등대원의 회·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등대원 생활관, 선박의 조타실이 재현된 대형모니터에서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입항하는 항해사의 성취감을 체험할 수 있는 운항체험실,



▶등대원 생활관



▶운항체험실



▶등대유물관

에어탱크 모양의 음파표지코너와 지구본 모양의 광파표지 코너를 통해 직접 체험 학습할 수 있는 등대과학관, 각종 유리렌즈와 등명기 등의 광파표지와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

에게 등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파표지, 소리를 이용한 음파표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등대유물관으로 구성되어 항로표지의 역할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양수산물관]

1985년 개관된 해양수산물관은 조개껍질을 얹어놓은 형상과 하늘을 받치고 있는 파란 기와지붕으로 하얀 호미꽃등대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으며, “21세기 일류 해양 한국”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추진전략과 청색혁명을 통해 해양부국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우리나라와 세계의 해양개척 및 선박의 발달사를 볼 수 있다. 또한 해운항만의 변화와 세계 속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위상과 수산물과 깃별의 이용, 그리고 바다목장과 해양연구·조사 및 해도 제작에 관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 해양수산물관 내부



▶ 해양수산물관 전경

리나라 해양산업의 위상과 수산물과 깃별의 이용, 그리고 바다목장과 해양연구·조사 및 해도 제작에 관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기획전시관]



▶ 등대역사실



▶ 영상실

2003년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자 신설된 기획전시관은 등대건설을 위한 대한제국 초기 문서, 등대의 역사와 현황을 기록한 등대연혁록, 광원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화구(火具)류, 근대식 등대 도입이전 민간제작 형태의 도대불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는 등대역사실과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획전시실, 등대원의 업무와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매일 상영하고 있는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 수상전시관

[수상전시관]

축소 모형으로 설치한 영일만과 포항항 전경, 우리나라 국토 최동단 신비의 섬 울릉도와 독도 전경 그리고 항로표지 현황을 사실적으로 설치하여 여러 종류의 선박들이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항만을 입·출항하는 광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상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다.

[야외전시관]

야외전시관은 제1야외전시관, 제2야외전시관, 제3야외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야외전시관에는 1930년대 공기 싸이렌 나팔과 공기 압축기, 등부표, 부표 및 손들목도표와 발동발전기 등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으며, 제2야외전시관은 광주해상무선표지국에서 사용한 장거리 무선향법 송신 장비와 축소된 안테나(실제높이 150m) 및 무선표지 안테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제3야외전시관에는 1981년도 포항 신항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던 FRP등대와 마산청 홍도등대의 태양광발전장치, 그리고 1903년 6월 1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부표식 등표인 북장자서 등표 축소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전시관



▶테마공원

[테마공원]

2004년 조성된 테마공원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울창한 소나무 숲 곳곳에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등대 모형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자연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1903년 초점등하여 100년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벗고 2003년 신축된 팔미도 등대, 제주도 고요한 섬의 우도등대, 동해의 수산자원을 대표하는 오징어 형태의 현포항 동방과제 등대, 해남읍 북서쪽 화원반도 끝에 위치하는 목

포구등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화암추등대, 해양친수공간으로 거듭난 영도등대, 항로표지선의 물품운반선인 전마선 등이 설치되어 국립등대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추억거리를 한 아름 선사하고 있다.

[전망대 휴게실]

2005년 완공된 전망대 휴게실은 바다와 인접하여 휴식을 취하며 항해하는 선박 및 푸른 하늘을 조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등대박물관에서의 추억을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등대관련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망대 휴게실 내부

[수은조식 회전등명기]



1910년부터 1987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리도등대에서 사용하던 수은조식 등명기이다. 렌즈 지름에 따라 3등급 소형 등명기로 구분되며 렌즈 내부에 석유백열등을 설치하고 프리즘렌즈의 굴절과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방사하였다. 등명기 아래 수은통에는 40kg의 수은을 넣어 무거운 등명기를 띄우고 톱니바퀴 장치로 감아올린 중추가 떨어지면서 등대 고유의 주기에 맞추어 6초반 동안 회전하면서 3초반동안 3번 빛을 발하며 빛의 도

▶수은조식회전등명기 달거리는 43km이다.

[아세틸렌 가스등명기 등롱]

1910부터 1960년까지 무인등대에서 사용하던 아세틸렌 가스등명기 등롱이다.

무등급 부동등명기용 유리렌즈(직경500m/m)로 내부에 아세틸렌 가스등을 설치하여 불을 밝혀 불빛이 멀리 나가게 하며, 섬광주기는 가스등의 화구 수량에 따라 조정된다.



▶아세틸렌 가스등명기



▶전기나팔

[전기나팔]

안개나 눈, 비가 올 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특수금속관을 울려 진동식 소리를 내어 등대의 위치를 알리는 장비이며, 소리가 도달하는 거리는 3.7km이다.

[등롱]

눈·비·바람으로부터 등명기를 보호하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철제로 제작하여 등탑 꼭대기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오동도등대에서 사용하였던 등롱이다. 등롱 내부에는 빛을 모아 반사, 굴절시킴으로써 밝기를 증대시키는 집광용 렌즈와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등명기를 회전시키는 모터식 회전등명기가 설치되어 있다.



▶등롱



1



2



3



4

《국립등대박물관 이용안내》

- 개관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마감 30분전까지 입장)
- 휴관일
 - 설날, 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
- 입장료

대 상	만 18세 이하	일반 (만18세이상~65세이상)	단체 (일반 20인 이상)	비 고
관람료	무 료	700원	500원	군인은 50% (할인 관련 증명서 제시)

- 홈페이지 : <http://www.lighthouse-museum.or.kr> (국립등대박물관)

1 2 호미곶 해맞이 광장·일출

해맞이 광장은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 개최 장소로 1만 여평의 부지에 기념조형물, 성화대, 불씨함, 연오랑 세오녀상, 공연장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광장전입로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에는 매년 4월~5월경에 유채꽃이 만개하고 있다. 이곳 광장의 기념 조형물인 상생의 손은 청동소재로 바다와 육지에 각각 설치하여 마주보는 형상으로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고 있으며, 변산반도 천년대의 마지막 햇빛, 날짜 변경선에 위치한 피지섬과 이곳 호미곶 새천년 첫 햇빛 등이 합쳐져 안치된 성화대의 불씨는 각종 국제대회의 씨불로 사용되고 있다.

3 이육사 청포도 시비

“청포도”의 시인 육사(陸史) 이원록(李源祿, 1904~1944)의 시비(詩碑)로서 육사를 기리는 비문과 청포도 시가 새겨져 있고 시비 조형물 디자인은 영남대 홍성분 교수, 비문은 아동문학가 손춘익씨, 글씨는 서예가 정현식씨가 각각 맡았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육사는 호미곶과 가까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동 옛 포도원에서 시상(詩想)을 떠올려 청포도를 지었다고 한다.

4 구룡포항

경북 동해안 최대 어업 전진기지로 대부분이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룡포항 방파제는 바다 낚시터로서 인기가 높다. 특히 구룡포항에는 갯 잡아온 활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횡감 구입이 가능해 주말이면 어시장을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구룡포항 활어 위판장이 이용시간은 06:00~20:00까지이며 위판은 방파제와 수협 위판장에서 이루어진다.



찾아오시는 길

- 포항시외버스터미널(200, 200-1번) → 구룡포 → 대보행 → 해맞이광장
- 포항(31번 국도) → 동해면(925번 지방도로) → 국립등대박물관
- 포항(31번 국도) → 구룡포(925번 지방도로) → 국립등대박물관
- ※ 국립등대박물관 및 호미곶광장 무료주차 가능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2리 221
- 연락처 : 국립등대박물관 ☎ 054-284-4857, 2857

위성항법중앙사무소

DGPS (Differential GPS) 실시간 측위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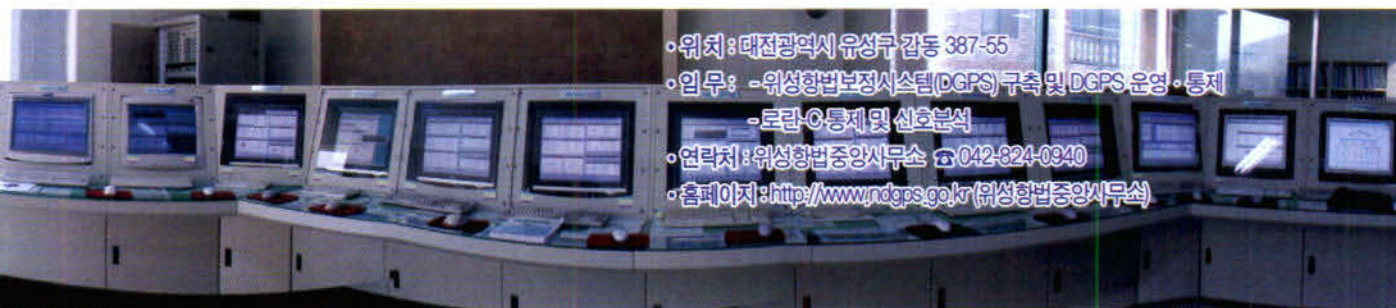


인류가 항법 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도구는 4500년전 중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고, 15세기 중엽부터는 주로 해상항해를 위해 태양, 달, 별들을 관측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천문항법(天文航法)으로 발전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비로소 전파를 이용한 전파항법(電波航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는 측지분야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위성(satellite)을 이용한 위성항법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처럼 인류는 자신의 위치확인 반경을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좁은 공간에서 작은 점(點)으로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고자 노력해 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항만 입·출항, 협수로 및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필수요건인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오차를 1m 이내로 정확하게 보정·방송하는 첨단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을 1999년 8월 서해권의 팔미도, 어청도를 시작으로 2002년 소청도, 소흑산도, 저진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명실 공히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을 이중으로 커버하는 11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

이러한 정밀측위정보를 산악 및 내륙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무주, 영주, 평창에서 측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07년 말에는 충주, 성주, 춘천지역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 핵심인프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항법분야는 물론 측지 측량, 산림관리, 지리정보, 정밀농업 및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텔레매틱스, 유비쿼터스 분야에서도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기술 및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87-55
- 임무: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구축 및 DGPS 운영·통제
-로람·C통제 및 신호분석
- 연락처: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042-824-0940
- 홈페이지: <http://www.ndgps.go.kr> (위성항법중앙사무소)



11



3



2

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국내 유일의 과학 테마파크(Theme park)로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교실 밖 과학 체험학습 공간이며 자연과 인간, 전통과 미래가 한데 어우러져 과학이 빛어낼 환상의 세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2 유성 온천

들뜬 날개를 다친 학 한 마리가 부리를 온천물에 담가 날개에 문혀 치유했다는 설화가 깃들여 있는 유성온천, 온 가족이 함께 노천탕 속에서 뜨거워진 몸으로 겨울 바람 한번 시원하게 맞아 보면 세상사 복잡했던 마음이 절로 녹는다.

3 계룡산 갑사

大韓佛敎 曹溪宗 鷄龍山 甲寺

통일신라시대에는 五臺 中 西臺, 고려시대엔 妙香山 上臺, 조선시대엔 下臺라 하며 더불어 三臺 中 中臺으로 일컬어지는 명산 鷄龍山의 서편 기슭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계룡리에 위치한 갑사

TIP

템플 스테이(Temple stay)

한국인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온 사찰의 산문을 열고 새벽 예불에서 저녁 공양에 이르기까지의 스님들 수행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새벽예불

새벽 기운이 뭉뚱하게 물어나는 어둠속에서 장엄한 합창은 머리 속 잡념과 마음 속 번뇌를 깨끗이 씻어준다.

- 참 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참선수행의 기회를 가진 게 된다.

- 발우공양

뭇 생명과 이웃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식사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 찾아오시는 길

- 경부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 유성 IC → 32번 국도 → 공주방면 → 국립현충원 옆 →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호남고속도로 → 유성 IC → 32번 국도 → 공주방면 → 국립현충원 옆 →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무주위성항법사무소는 소백산맥에서 남쪽으로 뻗어나온 덕유산 국립공원의 산기슭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용 DGPS기준국과 연계하여 내륙에서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위성항법보정시스템(Nationwide-DGPS) 구축 계획에 의거 설치된 최초의 내륙위성항법보정기준국이다.

무주기준국은 36,717㎡(11,107평)부지에 송신국사 63평, 90미터 삼각지선식 송신안테나, N-DGPS 장비, 시각동기시스템 등을 갖추고 '03.12월 준공하여 시험전과 발사를 거쳐 '04.6월부터 내륙지역에 24시간 N-DGPS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세습 원자시계에 의한 고정밀급 시각동기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무주기준국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의 이용범위는 반경 80Km로서 전남·북 및 충청남도, 경상도 일부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관리, 정밀농업, 물류 및 차량관리, 도로경계 측량, 송전철탄관리, 지하매설물조사, 자원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생활 편의증진은 물론 국가 위치정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기준국의 주변 볼거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와 무주리조트,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덕유산, 금산 인삼축제, 다목적댐인 용담댐, 진안 마이산, 운일암, 반일암, 나제통문 등이 있다.

전파발사일 : 2004. 6. 16.

- 위 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1109번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지상1층)
- 부지면적 : 36,717㎡ (11,107평)
- 건물구성 : 장비실, 운영실, 사무실, 발전실, 기타
- 연락처 : 무주위성항법사무소 ▶063-322-3415
- 홈페이지 : <http://www.mj.ndgps.go.kr> (무주위성항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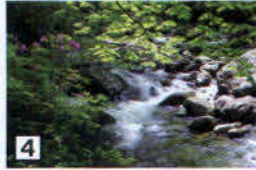
1



3



2



4

1 덕유산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인 덕유산은 해발 1,614m의 향적봉(香積峰)을 중심으로 1,300m 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으로 장장 100리 길의 대간(大幹)을 이루며, 봄철이면 칙칙리 계곡에 빨간 철쭉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으로 피서객을 손짓하며, 가을이면 붉게 타는 단풍으로 만산을 물들이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뒤덮인 설경속에 설화를 피워 신비경을 이룬다.

2 무주 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내 2백12만3천여평의 부지위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 산악형 리조트로서, 건물 하나 하나와 거리 등 모든 시설이 산악지형에 어울리는 오스트리아풍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유럽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3 반딧불 축제

맑은 공기와 쏟아지는 별들, 그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별 같은 반딧불! 그 반딧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축제가 매년 무주에서 개최된다. 하늘을 수놓는 여름밤의 별, 그리고 별이 쏟아지듯 하늘을 횡단하는 반딧불의 모습은 이곳, 무주가 아니면 만나기 어렵다.

4 무주 구천동 계곡

덕유산 국립공원의 최고 경치를 자랑하는 계곡으로 나재통문 앞 계곡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덕유산까지 70리 계곡을 말하며, 13개의 대(臺)와 10개의 소(沼), 그리고 폭포, 계곡 등을 하나하나 일러 구천동 33경(景)이라고 한다.



찾아오시는 길

- 시외버스터미널(대전, 전주, 광주, 대구, 금산, 영동) → 무주시외버스터미널 → 장안리(30분 소요) → 무주기준국(20분 소요)
- 무주 IC(대전-통영간 고속국도) → 적상(30번국도) → 조금재 터널 → 장안리(30번국도 → 635번 지방도) → 무주기준국(20분 소요)
- 전주 IC(호남 고속국도) → 진안(26번국도) → 안천(30번국도) → 장안리(30번국도) → 무주기준국(70분 소요)

영주위성항법사무소는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밀한 위치측정을 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에 전국망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갖추고 경북북부, 강원남부, 충북일원에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부지15,800평에 송신국사와 90미터 높이의 중파송신안테나 등 최첨단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갖추고 2005년 5월 준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위성항법사무소의 이용범위는 반경 80Km로서 경북 및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관리, 정밀농업, 물류 및 차량관리, 도로경계측량, 송전철탑관리, 지하매설물조사, 자원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생활 편의증진은 물론 국가 위치정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에는 소백산 천혜의 자연경관과 순흥지방의 순흥벽화고분, 순흥어숙묘가 있으며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서원과 화엄종의 근본 도량인 부석사, 금성대군의 충절이 서려있는 금성단 등 많은 유물문화 유적이 곳곳에 산재하여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풍기인삼은 조선조 중종때 주세붕 선생께서 산삼에만 의존하였던 것을 인위적으로 재배 생산하여 풍기, 금산, 강화 등 우리나라 3대 인삼주산지로 매년 10월경에 개최되는 풍기인삼·사과축제가 유명하다.

- 마을명 : 산법리
- 위 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276-2
- 특산물 : 풍기인삼, 영주부석사과, 탄산포도
- 연락처 : 영주위성항법사무소 ☎ 054-631-0941
- 지역축제 : 소백산철쭉제(6월), 탄산포도축제(9월), 부석사과축제, 풍기인삼축제(10월)
- 홈페이지 : <http://www.yjndgps.go.kr>
(영주위성항법사무소)



1



2



3

1 부석사무량수전

한국전통의 멋이 담겨진 아름다운 건축물이며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고 책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로도 유명하다.

TIP

소백산 풍기온천은 지하 800미터 지층의 천연 온천수로 불소 및 알칼리성유황이 주성분이고 물이 부드럽고 매끄러워 당뇨병, 관절염, 부인병, 피부미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전국에서 찾는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락처 : 소백산 풍기온천(풍기읍)

☎054-639-6911

2 소백산국립공원

소백산(1,439m)은 회귀동식물 및 야생화의 보고이며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주변경관이 일품이다.

소백산 산행코스

- 제1코스 : 죽령 또는 회방사→제1연화봉→비로봉(약7km, 3시간 30분소요)
- 제2코스 : 삼가동→비로사→달밭재→비로봉(약5km, 2시간 30분소요)
- 제3코스 : 울전매표소→어의계곡→비로봉(약4km, 2시간소요)
- 연락처 : 국립공원소백산사무소(경북영주) ☎054-638-6196

3 영주선비촌

옛 선비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영주까지 버스로(2시간30분소요)
- 청량리역에서 풍기역까지 열차로(3시간 30분)
- 안동에서 풍기(1시간30분)
- 영주시내버스는 각각 삼가동행(26번)
- 회방사행(25번), 배짐리행(53번) 등이 운행
- 영주시외버스정류장 ▶054-631-5844
- 철도고객센터(풍기역)▶1544-7788

예로부터 바다에서 선박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햇불 등을 이용하여 항해의 지표로 삼았으며, 4000년전부터 문명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강이나 바다의 물길을 이용한 여행이 일반화되어 강이나 해안가에 표적을 설치하고 항해의 지표로 이용하여 왔다.

등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4세기경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위한 길잡이로서 밤에 햇불이 타오르는 탑에 대한 것이 있다. 리비아와 이집트 주변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바다는 거울이면 아주 거센파도가 휘몰아쳐서 선박운항이 어렵게 되자 리비아인들과 쿠시인들이 최초로 항해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불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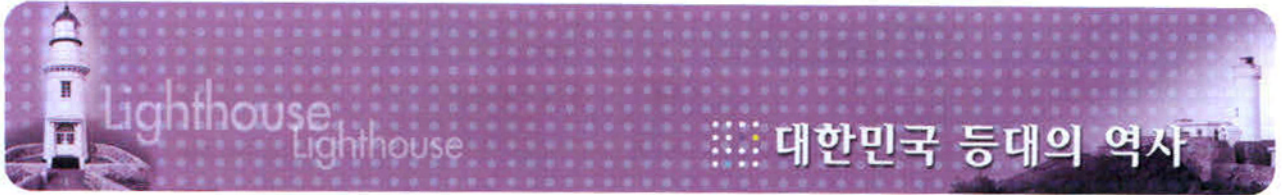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원전 280년전에 지중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항구 입구 근처에 있는 파로스라는 작은 섬에 탑을 세워 밤이나 낮에 항해자의 눈에 잘 띄게 하였는데, 이 "파로스"등대가 세계 최초의 등대이다. 1600년 동안 선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파로스등대는 두 차례의 지진으로 파괴되어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AD 2세기경 스페인에 라 코루나(LA CORUNA)등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지중해 연안에 많은 등대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근대식 등대는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파로스등대(Pharos lighthouse)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때 건축가 소스트라토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화강석으로 쌓은 탑의 높이가 120m이며 나무를 태워서 내는 불빛이 55km까지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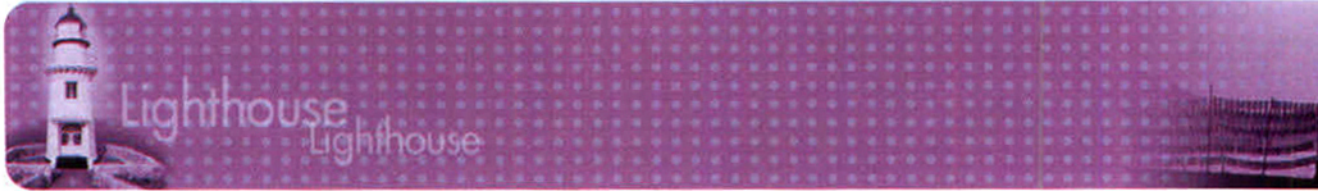
우리 조상들도 삼국시대이후 조선후기까지 햇불, 봉화, 썰과리, 깃발 등을 이용하여 선박항해의 지표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항로표지가 최초로 나타난 문헌인 세종실록(1422년)에 의하면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앞 해상 광장목에 지방수령이 향도선을 배치하여 세곡선박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근대식 등대가 도입된 계기는 19세기말 서구열강과 일본이 식민지 획득을 위해 동양으로 진출할 무렵 우리나라는 일본과 병자수호조약(1876년)을 체결하게 된다. 일본과 수교 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과도 수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국의 상선과 군함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항만시설과 더불어 항로표지시설의 설치를 우리정부에 수 차례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1866년 영국과의 수호조약후 통상장정을 맺게 된 것과 같은 수법으로 1883년 7월 25일 우리정부에 체결을 요구한 「조일통상장정」에 「조선정부는 통상 각항을 수리하고 등대초표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던 바,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던 것이다.

1884년에 정부관제가 4부 8아문으로 개편되면서 『해운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무』를 「공무아문 관선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1895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우리나라 연안 30개소에 항로표지 설치를 위한 위치조사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였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1902년 3월 26일 미국 외 7개국에 외교문서로 고시하였으며 1902년 5월 인천항 팔미도·소월미도 등대와 북장자서·백암등표설치공사를 착수하여 1903년 6월 1일 팔미도등대·소월미도등대·북장자서등표·백암등표를 신설 점등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식 항로표지의 효시이다. 그 후 인천항의 부도등대, 여수항의 거문도등대, 울산항의 울기등대, 제주항의 우도등대, 여수항의 거문도등대, 목포항의 칠발도등대 등을 신설 점등하여 일제강점기(1910.8)전까지 유인등대 20기와 무인표지 153기를 설치·운영하였다.

일제강점기 후에는 전국연안의 항로표지가 증가되고 장비의 발달로 석유등에서 아세틸렌가스등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해상물자수송의 필요에 따라 항로표지시설의 확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항로표지시설을 군사시설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항로표지가 국제적 공기로서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파괴가 불가피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철수하는 일본인에 의해서도 항로표지의 상당수가 파괴되어 전국에 기존 설치된 항로표지중 사용가능한 시설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측은 일본 정부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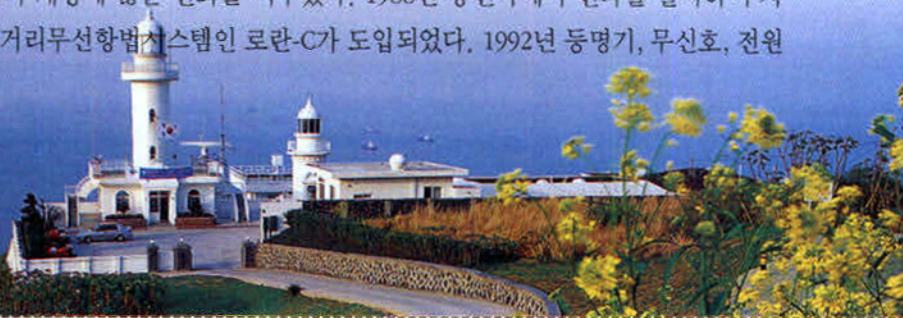
한국해안의 항로표지를 8.15이전으로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인천 근해에 미군함정이 겨우 출입할 정도로 가등(假燈)을 설치하고 일본인 등대원을 재배치하였을 따름이었다. 마침내 1945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항로표지업무를 인계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손으로 항로표지의 사명을 짊어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항로표지용품이 도난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46년 6월 15일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어 국방상 항로표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1947년 2월 1일 항로표지 업무가 해안경비대로 이관되어 한때 해군에서 관장하였다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항로표지업무는 그 해 11월 4일 대통령령 제26호에 의거 교통부 해운국으로 재이관되어 우리정부의 투자에 의해 기존에 파괴된 항로표지 복구사업이 추진된다. 일체의 표지시설을 인수받은 교통부는 곧 6개소에 전등시설, 2개소에 무신호, 4개소에 등표, 10건의 등대원 관사 및 10척의 보급선 등의 복구공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기술자의 단기양성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6.25동란으로 대부분의 항로표지가 파괴되어 기존 항로표지복구공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항로표지의 기능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뿐만 아니라 광원장치에 필요한 항로표지용품의 구입과 기술자의 부족 등으로 광달거리가 오히려 8.15이전보다도 악화되었다. 이에 교통부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네차례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대형등명기와 전원복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13개소의 유인등대에 발전시설이 갖추어지고, 29개소의 유인등대에 광원이 석유백열등에서 전기등으로 전환되었다.

1961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선박의 증가와 더불어 항로표지시설의 증설 및 개량에도 역점을 두어 수행한 결과 1960년에 항로표지기수가 254기에서 1969년 418기로 증설되었다. 항로표지기지장의 설치는 1961년 10월 2일에 교통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명칭이 최초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1962년 1월 6일 교통부장관 직속으로 독자적인 항로표지시설을 위한 각종 표지기기를 제작하게 되었다. 장비의 개량 및 장비가 전자화됨에 따라 항로표지시설도 전자기기로 점차 변모해 갔다.

1970년대 이후 첨단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광원이 전기식 등명기로 교체되고, 1976년 3월 13일 해운항만청이 발족되면서 항로표지시설의 개량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1988년 송신국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자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인 로란-C가 도입되었다. 1992년 등명기, 무신호,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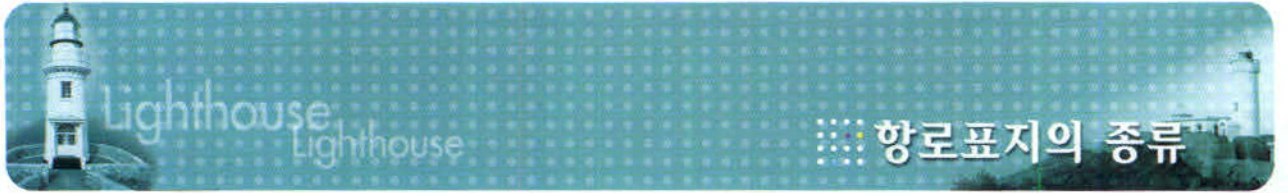


공급장치 등 등대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의 동작상태를 컴퓨터로 원격조정 및 감시하기 위한 현대화된 자동원격감시·제어장치가 격렬비도등대에 처음 도입된 이후 낙도오지의 유인등대를 무인원격으로 조정하는 곳이 늘어났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어 항로표지를 관리하면서 선진항로표지 국가로 발전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이 1999년 8월에 도입되어 서해안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동·남해안 주요 등대 11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0월 25일에 항로표지측정선이 건조되어 항로표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항만의 연안에서 항행안전과 연관된 항로표지관리·운영 등 해양교통정보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 조류가 강한 해역의 조류정보를 실시간으로 항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류신호소, 국지적인 해양의 기상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상신호표지를 IT기술에 접목한 항로표지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시설의 통합관리 및 통항 선박에 대한 동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감시함으로써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종사자들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 쾌속화 등으로 해상교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난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최첨단장비를 갖춘 항로표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양 친수문화공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등대의 해양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전국 주요 유인등대 3개소에 개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변천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항로표지용품들을 영구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해상교통안전의 중요성과 바다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1985년 2월 7일 경북 포항 호미곶에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등대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유물 전시를 통한 해양문화체험, 항로표지 역사보존과 발전연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제2전시관과 부대시설 및 전시물 보관을 위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 4월 19일 등대박물관을 재 개관하게 되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위에 한줄기 빛으로 뱃길을 열어주는 등대가 우리 바다에 처음 불을 밝힌 지 100년이 되었다. 그 동안 항로표지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1세기는 신 해양시대로서 지속적인 항로표지의 발전과 바다를 통하여 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우리세대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이자 사명이다.





항로표지의 종류

■ 광파표지 :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

- 유인등대 : 등대직원이 상주하여 광파, 음파, 전파표지 등 복합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등대
- 무인등대 : 등대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정비원이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하는 소형등대
- 등 표 : 암초상이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그 위험을 표시하는 것으로 빛을 발하는 표지
- 도 등 : 협수로상의 항로연장선상에 2기 이상의 표지를 1조로 설치하여 안전항로로 유도하는 표지
- 조 사 등 : 등대에 투광기를 병설하여 암초 등 위험구역에 빛을 투사하여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표지
- 지 향 등 : 지역적 여건상 도등의 설치가 곤란한 협수로나 진입로상 등탑에 일직선 3색광(홍, 백, 록) 등기를 설치하여 선박이 백광을 보고 안전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표지
- 등 주 : 구조가 간단한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는 간이등대 시설
- 등 부 표 : 해상에 띄우는 구조물로서 항로상 가항수역과 암초 등의 장애물을 표시하는 표지

■ 형상표지 : 주간에 시인이 가능하도록 그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

- 입 표 : 암초상이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그 위험을 표시하며 주간에만 이용
- 부 표 : 해상에 떠있는 구조물로 항로상 가항수역과 암초 등의 장애물을 표시하며 주간에만 이용

■ 음파표지 :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할 때 음향을 발하여 그 위치를 표시

- 에어사이렌 : 압축공기에 의하여 사이렌을 취명하는 신호
- 전 기 혼 : 전자식에 의한 저주파 발진으로 발음기(유니트)에 의하여 취명하는 신호
- 모터사이렌 : 전동기에 의하여 사이렌을 취명하는 신호

■ 전파표지 :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것

- DGPS : GPS의 측위오차를 1m 이내로 정밀하게 보정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위성항법 장치
- 로란-C : 로란 수신기로 선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선박에 전파를 발사하는 장거리 무선항법장치
- 레이콘 : 선박의 레이더 영상면에 송신국의 위치를 모尔斯 부호로 표시하는 레이더 응답장치

■ 특수신호표지 : 좁은 해협, 수로 등에서 선박의 교통량, 항법상의 각종자료 및 조류의 방향 등을 주야간에 전파 또는 형상물로서 항행선박에 항법상의 자료를 통보하는 것

- 선박통항신호소(VTS) : 항만출입항로, 항만접근수로 및 협수로 해역에 레이더 및 CCTV를 설치 항해선박을 관제하여 안전항해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
- 조류신호소 : 항만출입항로, 항만접근수로 및 협수로 해역등 조류가 강한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조류의 세기 및 방향을 대형전광판을 이용 항해자에게 알리는 표지시설
- 기상신호소 : 항해선박에 기상특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바다헌장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바다는 한민족 범영의 기틀이며, 해양강국 1000년 세계의 바다는 우리 겨레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펼쳐질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 슬기롭게 가꾸며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 바다를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바다, 풍요의 바다, 공생의 바다를 이루기 위해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간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바다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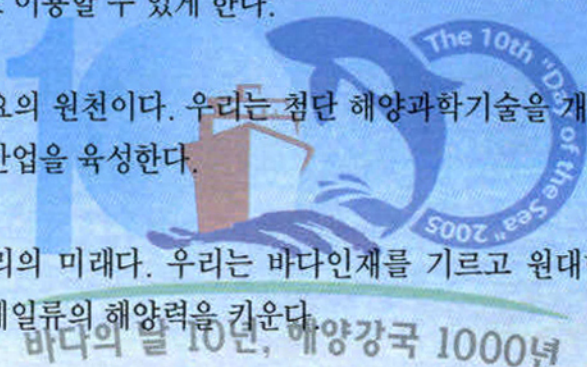
하나,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다. 우리는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육성한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는 바다인재를 기르고 원대한 바다경영을 통하여 세계일류의 해양력을 키운다.

하나, 바다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우리는 해양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하고 드넓은 대양에서 우리의 웅지를 펼친다.

하나, 바다는 민족의 기상이다. 우리는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복돋우고 새로운 해양문화를 일궈낸다.

하나, 바다는 평화의 마당이다. 우리는 바다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한다.





바다의 날 10년, 해양강국 100년

memo



희망의 빛 등대 길잡이

발행처 : 해양수산부
발행인 :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기획·편집 : 향로표지담당관실
인쇄 : 한성애드컴 2266-6559, 7671
발행일 : 2006년 1월

내용문의

해양수산부 향로표지담당관실
전화 : 3674-6340~5
주소 : (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